

원기91년도  
교화연구소 정기세미나

## 교화연구소 정기연구발표

- \* 2005인구주택 총조사
- \* 토탈교화공동체
- \* 마음공부 정책

일 시 : 원기 91년 8월 29일(화) 오후 2시

장 소 :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

주 최 : 원불교 교화연구소

원 불 교

원기91년도  
교화연구소 정기세미나

▷ 연구발표 내용 ◁

- ▶ 교단의 2005년 인구총조사 준비과정의 결과-----1  
발표: 나상호 / 교무 · 교정원 교화훈련부
  
- ▶ 각종 언론에 나타난 종교인구총조사 분석-----11  
발표: 문향허 / 교무 · 원불교신문사
  
- ▶ 토탈교화시스템 추진(부안 교창을 중심)-----35  
발표: 차윤재 / 교무 · 교화연구소
  
- ▶ 원불교 마음공부 정책방안-----50  
발표: 박동욱 / 교무 · 수위단사무처
  
- ▶ 첨부 자료 1 -----65  
제목: '마음, 마음공부, 마음공부 방법론'  
( 좌타원 김복환 종사)
  
- ▶ 첨부 자료 2 -----74  
제목: 전라북도와 부안 교창기초 자료모음

## 교화연구소 정기연구발표

사회: 전명오/교무·교화연구소

1. 개회
2. 입장
3. 심고
4. 격려사
5. 발표 및 질의토론
  - ▶ 교단의 2005년 인구총조사 준비과정의 결과-----1  
발표: 나상호 / 교무·교정원 교화훈련부
  - ▶ 각종 언론에 나타난 종교인구총조사 분석-----11  
발표: 문향허 / 교무·원불교신문사
  - ▶ 토탈교화시스템 추진(부안 고창을 중심)-----35  
발표: 차윤재 / 교무·교화연구소
  - ▶ 원불교 마음공부 정책방안 -----50  
발표: 박동욱 / 교무·수위단사무처
6. 질의 및 종합토론
8. 폐식

# 2005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교단의 준비과정과 결과

나상호 교무(교정원 교화훈련부)

## 1. 이끄는 말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원불교 교도수는 92,302명이었다. 그런데, 10년후인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86,823명으로 5,479명이 줄어들어 교단 구성원들이 충격을 받았다. 1986년~1994년까지 155,205명의 입교자를 있었음에도 10년 전 조사보다 적게 조사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신입교도와 쉬는 교도 관리 부족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교정원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10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2004년 초부터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다.

1996년~2004년까지 총 입교자 수가 211,756명이 늘어났지만, 10년 전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주력했어야 할 신입교도관리와 쉬는 교도관리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교화통계 결과로 확인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정원은 교단 내 각종 지표에 근거하여 150,000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전개한 결과, 130,000명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대응하는 정량적 증대 노력에 일부 부정적 입장에 있는 교역자들이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고 교당원명부에 등재되었지만 쉬고 있는 교도 파악에 적극적이었더라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쉬는 교도(잠재된 교도)를 교당으로 인도하는 계기로 삼고 이전보다 신입교도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다더라면 긍정적 의미가 더 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만큼의 결과를 이룬 것도 교단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이뤄졌다. 혹 염려했던대로 10년 전보다 적게 조사결과가 나왔더라면 여러 면에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확인해본다.

## 2. 인구주택조사의 목적 및 종교인구조사(통계청)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의 종교항목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 국내 기성종교 및 신흥종교 현황 파악
- \* 종교단체별, 지역별 종교인구의 규모, 분포 및 변화 추이 파악
- \* 종교인구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분석
- \* 종교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수립과 민간부문의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통계조사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조사였다.

종교인구조사 결과는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와 민간부문에서 종교 관련 정책을 세우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각 종교의 규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원불교 교도수의 조사결과가 10년 전에 비해 잘 나오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 \* 국내 4대 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위상 정립
- \* 국가의 종교 관련 사업(복지시설, 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수탁)에 영향
- \* 군중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 선정 조건(인구의 0.2% 이상, 군내신자수의 0.1% 이상인 종교)과 직결되어 있었다.

## 3.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주요업무 추진 일정

- \* 인력동원 : 2005.7-9(우수조사원 확보 노력)
- \* 조사원모집 : 2005.9(시·군·구 등을 통하여 모집) \*조사원 교육 : 2005.10
- \* 교육훈련 : 2005.3-10(전문가를 통한 효율적 교육기법 개발 도입)
- \* 대국민홍보 : 2005.10-11(열악한 조사환경 극복을 위한 획기적 홍보 전략 수립)
- \* 준비 및 본조사 실시(080 무료 전화 운영) : 2005.10-11(주택DB 등 다양한 행정자료 적극 활용 (방문 조사 2005.11.1~11.15))
- \* 최종 결과 집계 및 공표 : 2006.4-12(2000년 대비 3개월 이상 공표 시기 단축)
- \* 평가 및 조상 : 2006. 6(조사 전 과정에서 성과 측정 및 평가 실시)

## 4. 2005 인구주택 총조사의 준비 과정

### 1) 달성 목표 수립

달성 목표를 150,000명으로 정하였다.

- ① 지난 10년간(1996~2005년) 138,443명이 입교했다. 이 기간에 입교한 교도들이 원

불교 교도임을 밝히면 1995년 조사결과의 200%가 넘는 통계가 나온다.

② 원기 91년 범위사정명단(범위사정 대상은 만 14세 이상임)은 165,000명(원기82년, 85년, 88년 사정시 보류자 포함)이다.

③ 원기 89년 국내 출석교도 수 32,083명 이고

④ 원기 89년 국내 교화단원 수 47,504명 이다.

이상에 따라 출석교도의 5배(500%), 교화단원수의 3배(300%), 범위사정 대상 교도 및 입교자 대비 1배(100%)를 근거로 하여 150,000명을 목표로 정하였다.

**【종교인구조사에 대비 교구별 현황 자료】**  
(출석교도 수, 교화단원 수, 범위사정대상자수)

교 구 명	원기89년 출석교도수	원기89년 교화단원수	원기91년범위 사정대상자	입 교 자 (1996-2005)	비 고
강 원 교 구	450	938	3,188	2,784	
경 인 교 구	1,856	2,960	7,451	5,673	
경 남 교 구	1,548	3,357	8,606	6,076	
광주전남교구	1,505	3,640	16,451	13,567	
대구경북교구	1,170	2,472	6,170	4,795	
대전충남교구	1,270	2,419	6,410	5,018	
부 산 교 구	2,322	4,520	13,407	9,433	
서 울 교 구	8,180	4,286	22,544	17,081	
영 광 교 구	900	2,091	6,836	6,043	
전 북 교 구	5,158	10,932	27,938	21,426	
제 주 교 구	502	845	1,564	1,499	
중 앙 교 구	4,244	5,701	40,866	24,353	
충 북 교 구	206	592	2,074	1,576	
총 부 직 할	2,772	2,751	1,786	19,119	
합 계	32,083	47,504	165,921	138,443	

\* 이상 출석교도, 교화단원은 원기89년도 교화상황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출한 자료이다.

\* 참고로 삼은 1995년 조사결과를 교구별 범위사정수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은 산출자료가 나온다.

	1995			범위 사정서	달성율 (%)	원기89년도			교구장 (1995)
	교역자	교당	총인구			교회 단원수	교역자	교당	
강원	20	15	1,589	3,188	50%	938	27	19	박지홍(78)
경기인천	37	20	9,479	7,451	127%	2,960	54	34	장혜성(78)
경남	56	38	5,918	8,606	68%	3,357	63	41	조정중(79)
광주전남 /영광	93	64	10,948	23,287	47%	6,105	71/21	66	박성석(80)
대구경북	45	27	4,321	6,170	70%	2,116	52	35	이정무(79)
대전충남	41	27	4,013	6,410	62%	2,401	54	34	이종진(80)
부산	82	51	5,650	13,407	42%	4,520	85	54	이성택(79)
서울	116	59	14,546	22,544	64%	7,958	129	65	장응철
전북/중앙 /총부	137/5 8/554	112	28,422	70,590	40%	18,398	141/6 7 582	127	박정훈(76) 송영지(79)
제주	19	11	686	1,564	43%	656	19	13	박정목(79)
충북	14	9	1,252	2,074	60%	577	16	12	이성은(79)
총계	1,272	433	86,824	165,291	52%	49,986	1,381	500	

- ① 교역자수에 따른 평균 :  $86,824 \div 1,272 = 68.25$
- ② 교당수에 따른 평균 :  $86,824 \div 433 = 200.51$
- ③ 원기 89년도 교역자수 :  $1,381 \times 68.25 = 94,253$
- ④ 교당수 :  $500 \times 200.51 = 100,255$
- ⑤ 위의 교역자수와 교당수에 근거하여 범위사정수에 따른 예상 달성율 57-60%
- ⑥ 광주전남, 부산, 전북, 중앙교구는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2) 대응방안

### (1) 계속사업

#### ① 홍보 및 교육

가) 모임 및 훈련 : 교구장회의, 사무국장회의, 수위단회의, 출가교화단회, 교구별회의회, 교당 법회, 교화단, 전무출신훈련

나) 포스터, 리플렛 보급을 통한 홍보 : 포스터 연 2,700장 리플렛 연 270,000장 보급, 입교운동 포스트일, 신입교도를 위한 입교증 케이스와 신입교도 안내서

ㄱ) 포스터 : 인연복주머니, I LOVE 원불교, <원불교> 문패를 답시다.

ㄴ) 교화용 리플렛

입교와 법회출석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잠자는 교도에게 4축2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할 때 도움이 되고자 사축이재 리플렛과 순교용 리플렛을 주기적으로 제작, 보급하면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안내홍보를 겸하였다.

\* 교당에서 천도재만 지내고 교당에 나오지 않는 인연, 교당출석에 소홀한 교도, 교도자녀 친지로서 등내에 오른 조상이 있지만 교당에 잘 나오지 않는 인연들에게 대재를 계기로 교화하고자 육일대재, 명절대재 리플렛을 제작, 보급

\* 신정절, 대각개교절, 석존성탄절, 법인절 리플렛은 기념일을 경축하며 홍보하는 한편 기념식 및 기도(기원) 일정을 표기하여 법회출석이 소홀한 교도를 중심으로 각 가정에 발송하여 교당 출석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교당 기관에 보급하였다.

\* “원불교란?” 리플렛과 입교를 권장하는 “인연”를 리플렛을 보급하며 11월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를 대비하는 홍보를 겸하였다.

ㄷ) 매체를 통한 홍보 : 원불교신문, 원광, 원음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월간 교화, 교구보, 교화단 마음공부, 원불교 교보, 교화훈련부장 서신(전무출신 전체, 교도회장), 안내 PPT, 이메일 그림 편지(원불교 사이트),

② 원불교 문패붙이기 : 원기 89년 무상보급, 원기 90년 하반기 스티커형 문패 보급

### (2) 단기간 집중 사업(원기 90년 10월 - 11월 15일)

① 조사원 확보 : 원기 90년 7-9월(교구별 조사원 신청 내역 별지 참조)

② 교당별 목표 수치 설정 : 2005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예측을 교단 내에서 미리 해본다. 기준은 원기 91년 교당별 범위사정대상자수로 한다.

③ 입교 교도 챙기기 : 교당별 입교원명부 상의 주소 파악(홍보물) 보내기

④ 신입교도 관리 : 문패붙이기, 조사원 방문시 조사 응대요령 숙지

⑤ 전 교도 쉬는 교도와 인연있는 교도에게 홍보물, 이메일, 문자메세지 보내기

⑥ 교당별 범위사정 대상 교도 챙기기 - 교구별 대상 인원 별지 참조

⑦ 인터넷으로 신청(10월 29일~11월 7일)하여 조사입력(11월 1일~10일)

⑧ 기관 동참 관리 : 복지시설(특히 수용시설), 학교, 기관 법당, 청소년훈련원 등 특별관리 - 주간부서 및 법인별 책임 하에

⑨ 총부 간부 교구별 순회 법회 시간에 참여 강조

⑩ 인구주택총조사 용지 사본 배포

△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한 포스터 및 리플렛 발행 보급

구 분	항 목	제 작 일	발행 부수
리플렛 포스트일	육 일 대 재	89. 4. 30	6,000
	법 인 절	89. 6. 18	4,000
	원불교 안내	90. 3 .2	40,000
	대각개교절	90. 3. 22	25,000
	입교 포스트일	90. 3. 22	12,000
	행복(대각개교절 봉축)	90. 3. 22	20,000
	석존성탄절	90. 4. 14	10,000
	인연(입교운동)	90. 7. 19	20,000
	원불교,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종교인구조사 안내)	90. 9.30	100,000
포 스텐	복주머니(입교)	90. 1. 10	900
	I LOVE 원불교(인구주택총조사홍보)	90. 7. 19	900
	원불교 문패를 붙입니다	90. 9. 1	900

3) 교도 대중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사업계획 수립(교화훈련부) - 예산 확보(추경예산까지 편성함)

4) 교구 주도하에 출석 및 입교 교도불리기 전개, 신입교도 집중 관리

- \* 강원교구: 군 교화
- \* 경기·인천교구: 교구 전 교화단의 교화운동-1교화단 매년 1인 출석 인도 운동
- \* 경남교구: 일인 일도
- \* 광주·전남교구: 전교도 교화자운동
- \* 대구·경북교구: 교도 재가 운동 지속 추진
- \* 대전·충남교구: 1인 1도 입교 또는 잠자는 교도 깨우기
- \* 부산교구: 행복 가정 희망 세상 가꾸기
- \* 서울교구: 수도 서울 교화! 9인 연원 실천단으로!!
- \* 영광교구: 입교운동(700명 달성하기) - 구인연원 실천으로 입교 운동 전개
- \* 전북교구: 입교 배가 운동 - 교구 내 입교인 연 2,000명 목표 달성

- \* 제주교구: 한분이 또 한분을 인도하기(일인일도)
- \* 중앙교구: 1인 1도 실천으로 교도 증가 운동 전개
- \* 충북교구: 입교 수 배가하기 운동 전개
- \* 가족교회에 관심 갖도록 독려- 가족총동원법회, 30대 젊은 교도 교회

5) 현장교무들의 역할 부여

① 교도들이 조사기간(11월1일~11월15일)동안 가능한 집에 있으면서 조사에 응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도들이 조사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사원 선발은 시·군·구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2005년 9월), 조사원 교육(2005년 10월)

③ 교도들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종교조사 항목에 정확하게 응답하도록 홍보한다.

- 가구원, 이웃, 일가친척, 친지에게 종교 조사 항목에 원불교 기재할 것을 적극 홍보 및 권유

- 가구원, 이웃, 일가친척, 친지의 종교 항목이 잘못 기재되는지 감시 활동 및 사례모집

④ 교도 가정마다 <원불교> 문패를 달도록 권장한다.

- 원기 90년도는 문패를 500원에 보급한다.

- 부착을 꺼려하는 경우 조사기간만이라도 부착하도록 유도한다.

⑤ 입교운동을 지속하고 신입교도 관리(신입교도훈련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⑥ 쉬는 교도, 군복무 중인 교도와 교도 자녀 등에게 홍보물을 보낸다.

“잠자는 교도”를 파악하여 편지 및 엽서, 원광, 원불교 신문, 예회보 등을 보내기

6) 조사 직전 직접 교육 - 중앙총부 직원의 교당 방문 홍보

<주요 홍보 내용>

국가가 조사원을 모집하여 세대를 직접 방문한다. 이번 조사에 동원되는 조사인력은 11만명이며 1579만 가구를 조사한다.

■ 조사방법은

① 조사원이 항목별로 질문하면 대답하는 대로 기재하는 **방문면접조사** 이 경우, 아래

② 응답자가 직접 조사지에 기입하는 **자기응답 기입식**이 있으며

③ 이번 조사에서 처음 도입하는 **인터넷 조사**도 있다. 인터넷 조사 신청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10월 29일-11월 7일까지이며, 조사표 입력은 신청서에 부여

받은 아이디어로 접속하여 11월 1일-10일까지 입력한다.

■ 종교항목 조사 항목은

■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

①불교    ②개신교(기독교)    ③개신교(천주교)  
 ④유교    ⑤원불교    ⑥천도교  
 ⑦대종교    ⑧대순진리회    ⑨그 밖의 종교

7) 교구별 자체 교육 실시

: 자체 홍보 유인물 제작 또는 조사원 참여 희망 교도 교육

8) 조사원 참여 교도 확보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각 교구 및 교당 조사원 신청자 현황

교구	조사관리자 신청인원수	조사원 신청인원수	총신청 인원수	확정	교당 (총신청인원수)
강원	0	0	0	0	
경기인천	0	38	38	16	남동(1), 동안양(1), 부평(6), 부개(2), 북인천(2), 분당(2), 성남(7), 수원(4), 시화(1), 안산(2), 안성(3), 약대(2), 연 수(2), 오정(1), 용인(2)
경남	0	26	26	13	거창(2), 고성(1), 군북(4), 남지(1) 북 신(2), 산청(2), 서진주(1), 신현(1), 진 동(1), 진주(2), 진해(3) 창원(4)
광주전남	0	29	29	9	산수(1), 남광주(2), 영암(3), 곡성(5), 송정(2), 하남(3), 목포(2), 동순천(3), 중흥(8)
대구경북	0	11	11	4	포항(1), 서성로(4), 안동(1), 대구(4), 영주(1)
대전충남	0	61	62	22	강경(4), 공주(2), 계룡(2), 구봉(3), 둔 산(2), 남대전(3), 서대전(7), 유성(6), 서천(4), 천안(3), 대전(15), 원성(1), 장항(1), 신탄진(2), 동대전(6), (1)
부산	0	29	29	29	석포(1), 서면(7), 울산(2), 대연(1), 하 단(2), 영도(1), 사상(2), 금정(2), 망미 (3), 당감(1), 반송(1), 양산(3)
서울	7 반포(1), 서	159	167	40	가락(15), 개봉(5), 구로(8), 구의(1), 반포(1), 김포(1), 남서울(1), 도봉(3),

	초(1),유린(3),화곡(2)				방배(1),방학(5),상계(5),서울(7),서초(6),신길(2),신촌(10),여의도(6),원남(1),이문(3),장충(2),신림(7),양천(8),영동(1),유린(11),일산(3),전농(3),잠실(9),정릉(4),종로(3),중곡(3),중구(12),홍제(3),화곡(7),화정(7)
영광	0	19	19	6	영광(5),군남(4),불갑(1),도양(1),영산(3),백수(4),묘량(1)
전북	0	62	63	23	고창(2),교동(3),금구(2),김제(1),남원(3),동산(1),부안(1),삼례(2),서신(6),송학(6),아중(2),우아(6),운봉(2),임실(3),전주(6),정읍(3),진북(7),화산(3),효자(2),(1)
제주	0	11	11	3	제주(7),서귀포(1),신제주(3)
중앙	0	47	47	5	북일(10),남중(8),남군산(7),영등(5),이리(5),대야(4),익산(2),궁동(2),약촌(2),삼기(1),서이리(1)
충북	0	17	17	1	서청주(1),영동(3),증평(2),청주(5),충주(6)
합계	7	492	519	171	

## 5.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95년 87,000명에 대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30,000명으로 천주교에 이어 두 번째 높은 49.6%의 증가를 보여 명실공히 종교인구 통계지표를 통해서도 국내 4대 종교의 반열에 올랐음을 확인했다.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잠재된 교도들에 대한 홍보 결과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원명부상에 등재한 입교 교도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자면 신입교도와 입교하고 쉬는 교도에 대한 관리에 일대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신입교도 교육 및 관리 - 교당 자체 또는 소지역 단위로 해결 방향 잡아야 한다.

아울러 원불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화의 영역도 확장해가야 한다.

교화영역으로서는 이미 대중화의 장으로 진입한 원음방송과 한방TV 방송의 교화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인쇄 매체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며, 2006년 3월 24일 군중편입대상 종교로 승인한 이후로 전개될 군교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교화 이외의 영역인 교육, 자선 등 각 분야는 원불교가 종교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영역으로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직접교회와 저변교회는 맞물려 이뤄져야만 극대화 된다.

아울러 교단 교회의 기본 조직인 교회단 운영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소성대의 원리는 교회성장의 원칙이다. 교회단이 제 기능을 다하면 교회 성장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형식으로 흐르고 있는 재가교역자훈련(연수) 전문기관을 설립(전국에서 접근성이 좋은 훈련원을 선택해서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다.)하여 단장중앙을 중심으로 한 재가교역자교육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성공한 이웃종교사례나 단체 등에서도 벤치마킹할 1순위는 소조직 운영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교당 교회단 중 성공하는 교회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교회 형태의 변화도 시급하다. 교정원에서 추진하는 토탈교회시스템 정착(공동생활, 지역의 교당 및 기관의 연대-출가교회단 조직)은 효율적 협업 교회 모형으로 창출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 종교언론에 나타난 종교인구 기사 분석

문향허 교무/ 원불교신문사

## 1. 실마리

지난 5월26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종교인구 조사이다. 일반언론의 관심은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초월한데 있었고, 종교인구 분야는 천주교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짧게 사실 보도 하고 있다.

필자는 각 종교언론에 나타난 종교인구 기사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도 기사 행태만 보아도 각 종교가 종교인구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종교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우리의 상황과 대입시켜보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가늠할 수 있었다.

과연 우리 교단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함께 탐구해보자.

## 2. 블루칩과 엘로우칩, 그리고 중소형주

주식 시장에는 블루칩과 엘로우칩, 그리고 중소형주(나쁘게 말하면 잡주라고도 한다)로 구분한다. 블루칩과 엘로우칩, 그리고 중소형주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블루칩은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주를 비롯 업종 대표주를 말한다. 블루칩의 특징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제일 먼저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가장 늦게 떨어진다. 엘로우칩은 블루칩보다는 못하지만 성장가능성이 큰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그 특성상 언제든지 중소형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영능력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중소형주는 회사가 작고 재무구조가 뛰어나지 못한 주식이다. 이들의 특징은 블루칩과 반대이다. 상승할 때는 제일 늦게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진다.

종교를 주식과 비유해보면 어떨까? 한국의 종교시장에서 블루칩은 불교·기독교·천주교이다. 이를 빅3라고 한다. 이들은 한국종교인구의 99%를 차지한다. 10년전에는 97.5%이었으나 10년동안 99%로 올라갔다. 이는 천주교의 약진과 유교의 급락이 낳은 결과이다.

원불교는 어디에 해당될까? 규모로는 0.3%에 불과하니 중소형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교를 제치고 4대종교의 반열에 들었고, 10년동안 50%에 가까운 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그런 면에서 엘로우칩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엘로우칩은 그 특성상 대응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올 종교인구조사의 특징을 종교별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교‘주춤’, 기독교 ‘퇴보’ 천주교 ‘대약진’, 원불교 ‘약진’ 이’라 할 수 있다. 유교, 대순진리회, 천도교, 대종교는 아예 기사조차 찾을 수 없을만큼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먼저 블루칩으로 불리는 빅3부터 분석해보자.

### 3. 불교 ‘주춤’

불교는 총 1072만 명으로 10년전 조사에 비해 40여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불교인들은 0.4% 증가한 것을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불교의 아성이라 여겨졌던 부산지역의 불교인구가 7만7천여명 감소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불교의 교세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하면 생각보다 성장세가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기독교와 천주교에 비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 심층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불교신문은 5월26일 통계청 발표가 있는 후 곧바로 5월31일자 신문에 불교인구변화를 종교유형별 인구 추이, 성·연령별, 불교계 주요지표까지 도표를 이용해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나아가 전문가 분석, 지역별 분석, 지역별 타종교인구 분석까지 다양한 지면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전문가분석에서 김응철 교수는 그 대안으로 ‘도심 포교당 건립운동,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포교정책, 이미지 제고, 신도교육 강화와 조직화, 단위 사찰의 포교역량 강화, 포교활동에 전념할 스님 육성과 재가불교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별 타종교분석에서는 불교 동고서저, 기독교 서고동저의 사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5월31일자 사설에서는 1천만 이하로 떨어질 위기의식, 탁상공론식 포교행정을 지적했고, 6월14일자 칼럼에서 윤청광 방송작가는 주춤한 원인을 ① 증장기발전 계획과 포교 프로그램 청사진 마련되지 않음 ② 종책 연구소 부재-시대과제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차석 논설위원은 8월9일자 칼럼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부재하고 종단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질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보신문은 이번 결과를 참담한 성적이라 보고 10년간의 포교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해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이학중 대표는 7월10일 ‘종교인구 변화와 불교, 종단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통계청 조사결과 대책 세미나에서 혁명적인 종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총무원이 포교원과 교육원을 수평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포교원도 포교전략연구소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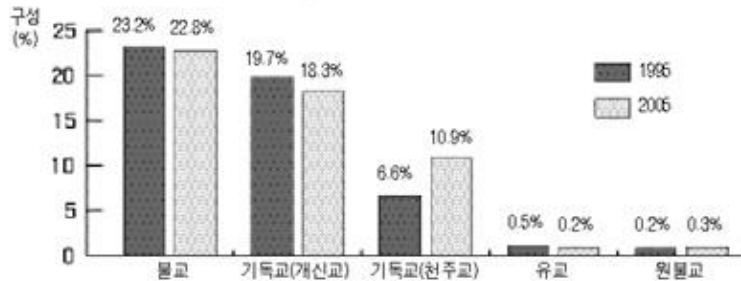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종교 인구부문

## 1995.2005 ‘불교인구 변화’ 비교

종교유형별 인구 추이(표) (단위 : 천명, %)

	1995		2005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율
총인구	44,554	100.0	47,041	100.0	2,488	5.6
종교 있음	22,598	50.7	24,971	53.1	2,373	10.5
· 불교	10,321	23.2	10,726	22.8	405	3.9
· 기독교(개신교)	8,760	19.7	8,515	18.3	-144	-1.6
· 기독교(천주교)	2,951	6.6	5,145	10.9	2,195	74.4
· 유교	211	0.5	105	0.2	-106	-50.4
· 원불교	87	0.2	130	0.3	43	49.6
· 기타	258	0.6	247	0.5	-21	-7.7
종교없음	21,953	49.3	22,070	46.9	117	0.5

종교유형별 인구 추이(그래프) (단위 : 천명, %)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수행열풍’ ‘불교바람’은 허수가 아닌 사실이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 중 종교인구부문을 보면 여전히 불교인구가 한국종교인구 내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종교인구 중 부동의 1위…성장세 소폭 감소

전체 인구 중 불교인구 증감률  
1032만 명 ('95) → 1072만 명…절대치 증가  
종교인구 중 불교인구 점유율  
23.2% ('95) → 22.8%… 압도적 우위 주춤

이번 조사결과는 10년 전에 조사한 ‘1995년 인구 주택 총 조사’와 비교해도 그 변화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2005년 종교인구는 1995년 2259만7824명(50.7%)에서 10.5% 증가한 2497만766명으로 2.4%포인트 증가했다. 급격한 사회발전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정신적 풍요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종교에 관심을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성별 종교인구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1995년 20~30대에 몰리던 종교인구는 2005년에는 50~60대로 몰리는 종교인구 노령화 현상을 보였다. 젊은층 인구가 종교탈퇴현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구체적인 종교별 연령분포가 올 7월경에나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이어서 각 종교별 젊은층과 중년, 노년층의 종교분포는 종교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5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개신교의 젊은층 인구가 타종교로 유입되거나 무교로 이탈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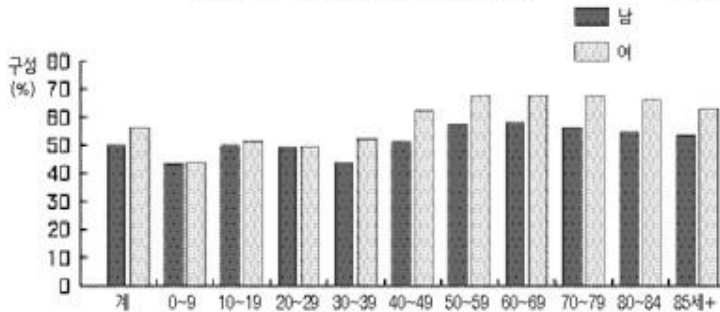
2005 성·연령별 종교 인구(표)

(단위 : %)

	종교 인구 비율		
	계	남자	여자
계	53.1	49.7	56.4
0~9	43.6	43.2	43.9
10~19	50.6	49.9	51.4
20~29	49.1	49.0	49.3
30~39	47.9	43.8	52.1
40~49	56.5	51.0	62.2
50~59	62.7	57.6	67.7
60~69	63.3	57.9	68.0
70~79	63.3	56.2	67.9
80~84	62.5	54.5	66.2
85세이상	60.6	53.4	63.0

2005 성·연령별 종교 인구(그래프)

(단위 : %)



성별인구는 2005년의 경우 남자가 49.7%로 여자가 56.4%인 것에 비해 6.7%포인트 적었지만 1995년 남자 종교인구가 47.3%였던 것을 감안할 때 남자종교인구가 대폭 늘어난 이례적 수치이다. 1990년대 말부터 경기침체를 겪으며 불안한 직장 남성인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가정 내 위치가 하락하면서 종교로 귀의하는 인구도 일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달라진 종교인구는 ‘종교유형별 분포 표’도 변화시켰다. 1995년 1032만1012명이었던 불교 인구는 2005년 1072만6463명으로 3.9%(40만5451명) 증가했지만, 불교인구와 각축을 벌이던 개신교 인구는 1995년 876만336명에서 2005년 861만6438명으로 1.6%(14만3898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천주교인구는 1995년 295만730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514만6147명으로 74.4%(219만5417명) 증가하는 놀라운 증강률을 보였다. 또 유교의 경우 1995년 21만927명이던 종교인구가 10만4575명으로 반감하는 급감률을 보였으며 이에 반해 원불교는 8만6823명이던 종교인구가 2005년에는 13만 명으로 늘어나 2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불교가 여타종교에 비교해 종교인구 구성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안심하고 내버려 두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숫자상으로는 불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1995년과 비교할 때 23.2%를 차지하던 불교의 종교인구구성비는 이번 2005년 조사에서는 22.8%로 소폭 감소했다.

물론 이는 74.4%(219만5417명)라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천주교의 영향 탓도 있지만 이로 인해 그간 여타조사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인구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던 불교가 다소 주춤세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의 지속적 성장에서도 장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교단지도부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종교간 화해제스처를 보이며 사회참여 활동을 늘려 종교인구수를 급성장시킨 천주교의 노력도 이번 조사에서 불교계가 타석지석으로 삼아야 할만한 교훈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배재수 기자 [dongin21@ibulgyo.com](mailto:dongin21@ibulgyo.com)

■ 1945~2005 불교계 주요지표 변화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교의 신도·사찰·교직자 숫자는 어느 정도 증감을 보였을까. 남조선과도정부가 편찬한 <조선통계연감(1943년 자료참조)>, 문교부가 펴낸 <종교요람> (1962)·<종교통계요람> (1966), 문화관광부의 <한국의 종교현황> (2002),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5.1995.2005) 등을 참조해 지난 60년 동안 불교계에 생긴 주요 지표 변화를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도수의 급증이다. 1943년 58만8210명에 불과하던 신도 수는 2005년 그보다 15배가 증가한 1072만6463명으로 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연도별로 보면 1943년 58만8210명, 1962년 68만7345명, 1966년 93만8093명, 1985년 805만9624명, 1995년 1032만1012명, 2005년 1072만6463명이다. 신도수의 변화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 “압축성장에 따른 심리적 이완이 종교에 마음을 돌리게 했고, 더불어 신도가 증가한 것”(서재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80년대 이후 불자들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는 교단의 안정과 적극적인 포교 등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간헐적인 종단분쟁에 신도들은 불교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 것도 사실이다.

**신도 수 급격한 성장 괄목  
사찰, 교직자 수 동반 성장**

신도수의 성장은 사찰의 성장이라는 동반효과를 불러왔다. 광복 2년 전인 1943년 1466곳이던 사찰은 1962년 2306곳, 1966년 2717곳으로 2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1966년 2717곳에 불과하던 사찰은 1985년 8892곳으로 1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찰 창건은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됐다. 2005년 집계된 사찰 수는 2만2072곳으로 1995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1990년대 이후 거액을 사찰에 기부하는 신도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정부지원금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불사문화가 바뀐 것이다.

교직자 수의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도가 늘어난 시기에 교직자 수도 증가했고, 사찰 수가 성장한 기간에 교직자 수 또한 비례해 늘었다. 교직자수는 6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다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 4만136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출가에 대한 사회인들의 인식이 새롭게 정착되고, 불교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배재수 기자 dongin21@ibulgyo.com

## ■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란

통계청이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통계조사로, 조사항목에 따라 최소 5년 최대 10년 단위로 조사된다. 종교인구의 경우 10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다.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는 지난 2005년11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조사됐으며 통계청 주관 하에 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의 행정조직을 통해 조사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조사원 면접, 응답자 직접기입과 인터넷 조사방식이 병행됐고, 조사항목은 총 44개 항목 중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21개 전수 항목과 표본을 선정해 조사하는 23개 표본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도별로 실시된 조사결과는 컴퓨터 입력, 집계, 분석 작업을 거쳐 총 4차례 통계청이 발표한다.

### 통계청 주관 5년마다 시행 각종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지난해 12월 잠정집계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5월26일 인구부문, 오는 7월에는 가구 주택부문, 9월에는 표본 집계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 주택 총 조사는 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지역별 인구와 가구 수는 물론 개인별 특성까지 조사해서 광범위한 내용을 정확히 수집해 각종정책의 수립, 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활용된다.

배재수 기자 dongin21@ibulgyo.com

[불교신문 2232호/ 5월31일자]  
2006-05-26 18:55 / 송고

## 전문가 분석/ 2005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불교인구 분포' 김응철/ 논설위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에서는 10년 주기로 국민들의 종교생활 유형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종교인구는 1985년과 1995년에 이어 지난 2005년도에 세 번째로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종교인구 변화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 나타난 종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불교인구 비율은 2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개신교 18.3%, 천주교 10.9% 등 기독교 인구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29.2%로 불교보다 6.4% 포인트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10년간 전체 인구 약간 증가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정체' 천주교 성장 사례 등 참고해 포교역량 강화대책 수립해야

또한 불교인구수는 1995년 1천 32만 1천명에서 2005년 1천 72만 6천명으로 약 40만 5천명(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독교계의 개신교는 1995년 876만 명에서 2005년 861만 6천명으로 14만 4천명(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의 경우는 295만 1천명에서 514만 6천명으로 219만 5천명(74.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분포 중 종교인구 비율로 분석해 보면 불교인구 비율은 1995년 23.2%에서 2005년 22.8%로 약 0.4% 감소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개신교는 19.7%에서 18.3%로 1.4% 감소, 천주교는 6.6%에서 10.9%로 4.3% 증가하였다. 불교 인구수는 약간 증가한 반면에 인구비중은 감소하였고, 개신교는 인구수와 인구비중이 모두 감소하였고, 천주교는 인구수는 물론 인구비중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남으로 전체 인구 중 40.1%가 불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울산 39.8%, 부산 39.2%, 경북 33.9%, 대구 33.4%, 제주도 32.7% 등으로 타 종교에 비하여 불교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북 23.8%, 강원 23.0%, 대전 21.8%, 충남 20.5% 등으로 이 지역은 타종교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전북 12.8%, 인천 13.8%, 광주 14.4%, 전남 16.1%, 서울 16.8%, 경기 16.8%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불교인구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 3.8%, 경북 2.9%, 전남 2.5% 등이었으며, 감소한 지역은 경기 -1.7%, 서울 -1.6%, 대전 -1.4% 등이었다. 개신교는 전남이 1.4%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천주교는 광주와 강원 지역이 9%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인구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호남권, 그리고 대도시 및 신흥도시 지역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260개 시군구 중 불교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147개로 전체의 56.5%에 불과하다. 113개 지역에서는 타종교 인구가 불교보다 많으며, 신안군을 비롯한 일부 도서지역과 수도권,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서 불교인구는 절대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약간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불교계는 전반적으로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단 차원에서 도심 포교당 건립 운동과 낙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포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불교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신도교육 강화와 조직화 확대, 단위 사찰의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들을 육성하고, 승가의 지도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가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천주교의 급성장은 도덕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와 각 지역 성당의 조직화된 선교역량의 강화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타종교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21세기 변화하는 종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만 정체된 한국불교를 부흥시킬 수 있다.

[불교신문 2232호/ 5월31일자]

2006-05-26 18:44 / 송고

## 2005 인구주택 총 조사-지역 불교인구 분석 부산. 경남 졸곧 우세...수도권. 호남권 열세



전국 16개 시도의 불교인구 중 경기도에 불교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불교인구의 비율은 경남, 부산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가운데 종교별 인구발표에 따르면 전국 불교인구 1072만6463명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 불교신자가 16.2%(174만1401명)를 차지해 가장 불교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서울시 15.3%(164만2667명), 부산시 12.9%(137만8384명), 경상남도 11.4%(122만542명), 경상북도 8.19%(87만8509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인구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결과다. 1995년 서울의 불교신자는 18.2%(188만3243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지역 내 불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40.1%), 울산시(39.8%), 부산시(39.2%), 경북(33.9%) 대구시(33.4%) 등의 순으로 부산, 경남권이 타 지역에 비해 불교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은 전체 인구 중 불교인구가 40.1%(122만542명)를 차지해 전국 지역 중 가장 많은 불교신자 분포를 보였다. 또 지난 1995년 불교인구율에 비해서는 3.8%포인트 증가했다. 경남지역 불교인구에서는 마산시가 14.7%(17만9420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어 창원시, 김해시가 뒤를 이었다. 부산시는 불교인구가 39.2%(137만8384명)를 차지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불교세를 방증했다. 부산시 내에서는 부산진구가 16만4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운대구, 사하구, 북구, 동래구 순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23.8%), 강원(23%), 대전, 충남 지역은 타 종교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전남지역, 전북지역은 지역 내 불교인구가 각각 29만2747명(16.1%), 22만7364명(12.8%)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불교인구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남지역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불교인구가 2.5%포인트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서울시에서는 불교인구가 16.8%(164만2667명)로 조사돼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1995년 188만3243명에 비해 1.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불교인구에서는 노원구 5.9%(9만656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9만3695명), 성북구(8만4942명), 관악구(8만4623명)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불교인구도 서울시와 같은 16.8%(174만1401명)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불교인구에 비해서는 1.7%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가 11.8%(20만717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남시(20만1126명), 안양시(14만5599명),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불교인구 비율은 인천 13.8%, 광주시 14.4% 등으로 나타났다.

임나정 기자 muse724@ibulgyo.com  
[불교신문 2232호/ 5월31일자]

## ● 지역별 타종교인구 분석

지역별 종교분포를 비교해 볼 때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 전북, 전남 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자의 수가 타 종교에 비해 우세했다. 서울시에서는 개신교 신자수가 22.8%(222만2831명)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는 개신교 신자수가 21.9%(226만594명)를 차지해 신자수가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밖에도 인천시 56만3433명, 전북 46만7454명, 전남 39만6183명 순으로 개신교 신자수가 많았다. 전남 지역의 경우 1995년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10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신교의 비율이 감소했다.

### 기독교...전반적 감소 '구름' 천주교...전반적 증가 '햇살'

반면 천주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자수가 증가했다. 광주시의 경우 천주교 신자수가 18만3787명으로 1995년에 비해 9%포인트 이상이 증가했으며, 강원지역의 경우에도 천주교 신자수가 13만2936명으로 10년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밖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인구보다 많은 지역도 있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인구 181

만5174명 중 51%(92만5595명)인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었고, 이어 강원도 74만7578명, 충북 73만3464명, 광주 73만1497명 등의 순으로 '종교가 없다'고 답해 향후 불교포교의 발전가능 지역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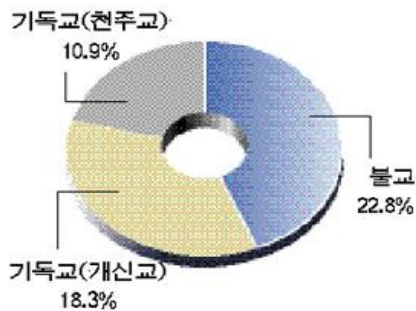
특히 '종교가 없다'고 다수가 대답한 지역인 강원, 광주 지역 등에서 천주교 신자가 급증한 것은 천주교에서 '틈새'를 공략한 포교전략의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교인구가 약한 수도권, 호남권, 신흥도시 등에 대한 포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나정 기자

[불교신문 2232호/ 5월31일자]  
2006-05-26 18:42 / 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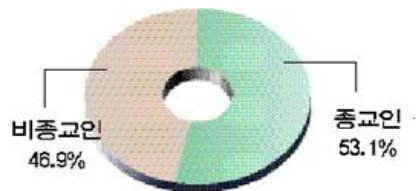
## 국민 절반 종교 있고, 5명 중 1명 불자 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 조사'서 확인

### 3대 종교 분포도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상은 종교(53.1%)를 갖고 있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 5명당 1명(22.8%)은 불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교인구가 10년 전과 비교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종교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소 완만하기는 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 종교인·비종교인 분포도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구 53.1%(2497만766명) 중 불교인구는 22.8%(1072만6463명)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 18.3%(861만6438명), 천주교 10.9%(514만6147명)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11.1 현재 우리나라 총조사  
종교인구, 자료제공=통계청

## 10년 전 이어 부동 1위, 증가 추세 구성비는 소폭 감소...안심은 금물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지난해 초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를 비롯해 최근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로 불교가 여전히 한국종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불교인구의 증가는 개신교 천주교 등 이른바 우리나라 3대 종교와의 단순한 나눠 먹기식 구성비 변화가 아닌 지난 2005년도 조사와 비교해 전체 종교인구 2.4%포인트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종교 흐름을 변화시킨 주요 변수임도 보여준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 지난 2005년과 비교할 때 1.6%(14만3898명) 신도가 감소했으며 유교의 경우도 50.4%(10만6352명) 급감해 차이를 드러냈다.

지역별 불교인구 조사를 보면 1995년까지 부동의 불교인구 1위를 고수하던 서울특별시(164만

2667명)가 경기도의 불자(174만1401명)수에 밀렸다는 특징을 보인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경기도의 인구유입과 불교대학 설립 등 불교계의 포교활성화 노력이 병행되어 이러한 결과를 빚어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불교 세(勢)가 강한 지역인 부산광역시(137만8384명), 경상남도(122만542명), 경상북도(87만8509명) 등은 여전히 불교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전남, 전북지역은 불교인구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 지역 불교포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종교인구 1위’ ‘불교인구의 꾸준한 성장’이라는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선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조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동양사상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의 폭이 늘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환경과 생명문제 대안으로 불교적인 삶의 방식이 화두가 되는 추세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결과”라면서 “특히 이 같은 변화는 젊은층의 증가라는 동반효과도 불려와 여자와 노인들만의 종교에 그치던 불교를 젊고 능동적인 종교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ibulgyo.com](mailto:dongin21@ibulgyo.com)

임나정 기자 [muse724@ibulgyo.com](mailto:muse724@ibulgyo.com)

## 차차석/통계에 무심한 불교계

[불교신문 2251호/ 8월9일자]

지난 5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한국 3대 종교별 인구 추이는 불교 22.8%, 기독교 18.3%, 천주교 10.9%를 점유하고 있다. 10년 전인 1995년도와 비교할 때 불교는 0.4%, 기독교는 1.4% 감소했으며, 천주교는 4.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절대 신자 수는 불교인이 40만 여명, 천주교인이 220만 여명 증가한 반면, 기독교인은 14만 여명 감소했다.

발표와 동시에 불교계 각 언론들 역시 다양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었으며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다. 종단차원에서선 아직까지 아무런 분석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해 무관심한 한국불교계의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체계적인 포교대책이 전무한 것이기도 하다. 천주교가 급성장한 것은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내적 조직관리의 체계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젊은 층과 고학력자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본다. 연령층을 대비하면 기독교인들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으며, 불교인의 연령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의 발표는 한국 주류 종교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천주교는 미사에 참여하는 인구가 128만 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분석에 골몰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기독교계는 기독교인의 절대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있으며, 역시 그 원인 분석에 열중하고 있다. 기독교가 현대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무늬만 종교인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 역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교계에도 무늬만 신도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 전체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통계청의 발표에 무덤덤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불교> 7월호에 실린 분석논문이 거의 유일하다. 불교의 중흥과 불교의 대중화는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

<법보신문>

## 불자 10년간 40만 증가...인구 증가율에 못 미쳐

### 통계청, 2005년 종교 인구센서스 발표

기사등록일 [2006년 05월 29일 월요일]

불교 22.8%로 ‘최대 종교’ 명맥 겨우 유지

가톨릭 74% 급성장...개신교는 1.6% 줄어

우리나라 주요 종교의 10년 간 성적표가 공개됐다. 결과는 가톨릭의 도약, 불교 침체, 개신교의 퇴보. 특히 불교의 경우 10년 동안 3.9% 증가했지만, 이는 인구 증가분 5.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74.4%라는 경이적인 신장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또 개신교의 경우 공격적인 선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자수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종교별 신자 비율(%)

1995년		2005년
23.2	불교	22.8
19.7	개신교	18.3
6.6	천주교	10.9
0.2	원불교	0.3
0.5	유교	0.2
0.6	기타	0.5
49.3	종교 없음	46.9

통계청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704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종교인구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1%(2497만1000명). 종교

별로는 불교 22.8%(1072만6000명), 개신교 18.3%(861만6000명), 가톨릭 10.9%(514만6000명), 원불교 0.3%(13만명), 유교 0.2%(10만5000명)순이었다. 신자수가 가장 많은 단일 종교는 변함없이 불교였다. 95년의 조사와 비교해 원불교가 유교를 앞지른 것 외에 표면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별 명암은 크게 엇갈렸다.

먼저 가톨릭의 약진이 눈부셨다. 가톨릭 인구는 95년 295만1000명에서 2005년 514만6000명으로 74.4% 증가라는 폭발적 신장세를 보였다. 10년 새 219만5000명이 늘었다. 이는 인구 증가분 5.6%를 13배 이상 초과한 수치로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 같은 약진은 가톨릭의 잡음 없는 안정된 조직력과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쌓아온 양심적 종교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관혼상제에 열린 자세를 견지한 것도 신자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교도 40만5000명이 늘었다. 10년 동안 3.9% 성장했다. 그러나 인구의 자연 증가분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7% 퇴보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종교인구 점유율이 95년 23.2%에서 2005년 22.8%로 0.4%p 떨어진 것도 뼈아프다. 94년 개혁종단의 등장 이후 끊임없는 포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퇴보한 것은 98~99년 종단 분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개신교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개신교는 유교와 더불어 유일하게 신자수가 줄었다. 10년 동안 14만4000명의 신자들이 개신교를 이탈했다. 때문에 공룡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던 성장세가 -1.6%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분이 5.6%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1%가 줄어든 것이다.

이외에 원불교가 10년 만에 유교를 따돌리고 우리나라 4번째 종교로 올라 선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도약으로 기독교(개신교+가톨릭)의 종교 비율이 95년 26.3%에서 2005년 29.2%로 크게 증가한 반면 불교는 23.2%에서 22.8%로 떨어지는 등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됐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mailto:kimh@beopbo.com)

854호 [2006-05-31]

## 조계종, 10일 통계청 조사 결과 따른 대책 세미나

## 본지 이학종 대표 “10년 포교 실패…전략 연구 필요”

기사등록일 [2006년 07월 11일 화요일]



“포교원 인력을 10명 증원하는 것 보다 교구본사 포교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이 포교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총무원을, 별원인 포교원과 교육원을 수평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행정 기관으로 전환하고, 포교원을 포교전략연구소 혹은 포교프로그램개발 연구소 등의 기능 중심의 부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법보신문사 이학종 대표이사)  
 가톨릭의 약진과 불교의 담보, 개신교의 침체로 드러난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7월 10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무와 포교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 ‘종교인구 변화와 불교,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초발제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10년 만에 교세가 74.4% 증가한 가톨릭의 성공 비결에 대해 “엄숙한 규율 속의 성직자, 마더 테레사 등에서 볼 수 있는 봉사의 이미지 등 깨끗하고 도덕적인 이미지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담보 내지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불교의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톨릭의 성공 배경을 철저한 분석, 불교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종단과 승가 및 사찰의 대화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런 바탕 아래 중앙에 집중하기보다 각 교구의 포교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가톨릭의 경우 성당과 신도들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각 성당의 평균 신도수를 4000명 이하로 줄여 분산시킨 뒤 이들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 오늘날의 성과를 일궈냈다”며 “우리도 교구본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교구를 인접교구와 통합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보신문사 이학종 대표이사는 “김 교수의 발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불교의 현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따른 종단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의 포교정책은 실패했으며, 이제 혁명적인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먼저 종무행정 일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원이 별원인 포교원과 교육원을 수평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교원도 전국의 신행단체를 관리하는 소극적인 조직에서 포교전략연구소 내지는 포교프로그램 개발연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지역, 계층, 연령,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포교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대안 도출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무기관 사이의 권한 분담과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중앙의 준비된 중무원들이 일정기간 지방의 교구본사에서 일하는 순환근무제 도입과 재가불자들의 중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회를 스님들의 상원과 재가불자의 하원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또 “수도권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 서울을 강남 북교구(강북 조계사, 강남 봉은사)로 분할 하고, 불교 취약지역 가운데 하나인 인천에 교구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토론자로 불교신문 조병환 편집국장, 포교원 박용규 포교행정팀장, 기획실 김판동 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861호 [2006-07-11]

#### 4. 기독교 ‘퇴보’

기독교는 10년전보다 14만명 감소한 861만여명으로 발표돼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기독교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기독교의 성장세가 감소된 반면 천주교가 74.4%나 성장한 사실에 놀라움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계청 조사에 의문을 표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자성과 회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숨고르기이다’라고 보는 측과, ‘사실로 받아들이자’는 측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독교신문이나 기독교연합신문은 후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사실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크리스티안 타임스는 전자의 입장에 치우친 감이 있다. 양적으로는 감소해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와 가깝지 않아 나온 결과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기독교연합신문은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을 보도하면서 기독교의 성장 둔화 내지 감소 요인으로 ▲80년대 이후 일어난 교육목회의 양적 성장 제한 ▲정보·지식 산업사회를 대비하지 못하는 등의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교 개회주의와 사회선교에 대한 소홀을 들었다. 또 기독교연합신문은 사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선교전략 부재, 교회의 내분과 일부 목회자의 일탈 등 세속화된 모습이 교회 이미지 훼손을 지적하고, 뼈를 깎는 자정운동으로 고쳐가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교단에서 내는 통계치에도 거품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대 기독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심층분석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3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자존심을 상한 듯 하다. 특히 올해는 월드컵과 다빈치 코드 논쟁으로 인해 그런 경향을 부채질한 듯 하다.

#### <기독교신문>

##### 기독교인 감소추세 뚜렷 ‘충격’

##### 통계청 조사, 10년 전 보다 14만 명 감소

지난 10년간 기독교인 감소 추세가 뚜렷해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은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중 기독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3퍼센트인 8백61만 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2005년 11월 1일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천4백97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퍼센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종교인구수는 1995년에 비해 2.4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4728만 여명의 총인구중 불교인구가 22.8%로 가장 많은 비율로 집계됐고, 기독교 18.3%, 천주교 10.9%순으로 나타났다.

3대 종교중 불교와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천주교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교 인구는 1995년 23.2%에서 지난해 22.8%로 비율에서는 감소했으나 인구수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1천32만 여명에서 지난해 1천72만 여명으로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는 타종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천주교는 1995년 295만 명에서 지난해 514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구성비 6.6%에서 10.9%로 증가한 것으로 인구 증가율은 74.4%에 달하는 수치이다. 유교는 0.5%에서 0.2%로 대폭 감소했고 원불교는 0.2%에서 0.3%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기독교 인구수는 10년 전에 비해 구성비 및 인구수 모두 감소한 결과로 나타나 심각성을 드러냈다. 199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당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국민들은 876만 명이였다. 그러나 10년 뒤인 지난해 조사된 인구 주택 총 조사에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이들은 8백61만6천명이였다. 이는 포인트상 19.7%에서 18.3%로 1.4% 감소했고, 인구수에서도 14만여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기독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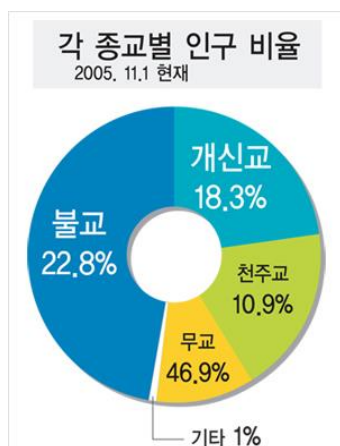
성별 종교인구에서 남자는 49.7%, 여자는 56.4%로 여자가 6.7%포인트 높게 나왔고, 연령별 종교인구 비율은 남자는 50~60대, 여자는 60~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는 50.6%, 20대는 49.1%, 30대는 47.9%, 40대는 56.5%, 60대

우리나라의 총조사 인구는 4,728만명으로 2000년(4,614만명)에 비해 114만명(2.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2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8.2%를 차지하며, 이는 2000년보다 141만명(6.6%) 증가한 수치이다.

6.7

<크리스천타임스>

**통계청 “개신교인 860만?” 교계 반응은 “가우뚱”**  
 통계에 의문 제기 “현실 받아들이고 자성하자” 의견도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원이 86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내세워왔던 '1200만 성도'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분분하다.

또 이번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각 종교별 신자 수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10년 전과 변화가 없지만, 불교와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하락한 반면 천주교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약 4천7백만 명의 한국인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천497만 명(53.1%)에 달했다. 총인구 중 불교 인구가 22.8%(1,072만)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18.3%(861만), 천주교 10.9%(514만)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교가 0.4%, 개신교가 1.4% 감소했고 천주교는 4.3%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청 조사결과를 접한 교계 지도자들은 모두 예상 밖의 수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기총 직전회장 최성규 목사(순복음 인천교회)는 “교회가 보다 성숙했기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기준을 교회 출석여부에 두지 않고 제자훈련을 비롯한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수준에 따라 응답한 것 같다”며 기독교인 수가 급속히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최성규 목사는 “지금도 주변에서는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른 인식”이라며 “교회 건물을 채우는 단순한 숫자개념에서 벗어나, 진정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덕교 총장(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도 통계청 결과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독교인의 분포와는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오덕교 총장은 “통계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 반해 이번 통계청 조사는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기독교와 가깝지 않아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덕교 총장은 가톨릭의 급속한 성장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덕교 총장은 “산아제한에 동참했던 기독교계에 비해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통계의 결론”이라며 “기독교계가 출산문제를 좌시할 경우 가톨릭에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KNCC 박경조 회장은 “통계를 절대적인 지표로 삼을 수는 없으나 기독교인의 숫자가 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며 “교회가 이번 통계청 발표를 계기로 더욱 자성하고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 <기독교연합신문>

###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 소폭 감소 통계청, 2005 인구 총 조사 발표해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약 8백61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8백76만 명으로 나타났던 199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에서 1.6%가량 줄어든 결과다.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약 4천7백만 명의 한국인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천4백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인구 중 불교

인구가 22.8%(1,072만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18.3%(861만 명), 천주교 10.9%(514만 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천주교는 95년보다 4.3%의 증가세인 반면 기독교는 1.6% 감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자성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한국 교회 언론회(대표 : 박봉상 목사)는 논평을 내고 “천주교의 경우 사회정의에 대한 조직적인 움직임과 술과 담배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지난해 새로운 교황의 승계 등이 성장에 플러스효과를 낸 것”으로 진단했다. 또 한국 교회 언론회는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반 기독교문화와 세력의 도전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교회 내의 개혁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최희범 목사도 “그동안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던 통계에 거품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결과는 가슴 아픈 것”이라며 “그러나 저 출산시대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인 선교전략 개발만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2006.05.29 오전 11:31:51]  
김찬현 기자 [[chkim@igoodnews.net](mailto:chkim@igoodnews.net)]

### “기독교인 줄어든 것, 사회와 함께 호흡하지 못한 원인” **교회 언론회, 통계청 종교인구조조사결과 관련 논평**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센서스 결과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1995년 조사에 비해 14만여 명이 감소한 것과 관련 한국 교회 언론회(회장 : 박봉상 목사·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 자기성찰과 사회와 함께 호흡하지 못한 것이 교인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이와 관련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회선교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언론회는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995년에 비해 14만여 명 줄어든 8백61만6천 명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 “교인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데도 교적부를 바로 정리하지 않은 것이 이 같은 허수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통계 하에서 선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장 둔화 내지 감소 요인으로 ▲80년대 이후 일어난 교육목회의 양적 성장 제한 ▲정보·지식 산업사회를 대비하지 못하는 등의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교 개회주의와 사회선교에 대한 소홀을 들었다.

언론회는 이와 함께 2백19만 명이 증가해 2백19만여 명으로 증가한 천주교의 경우 “사회정의에 대한 조직적 움직임, 장례와 제사, 주초(酒草)문제와 같은 현실문제에 대한 관대함, 중앙집권적인 결속력 등과 함께 지난해 교황의 선종, 새로운 교황의 승계가 세계적 관심을 모았고, 국내에서도 올해 새로운 추기경의 탄생과 같은 이미지 홍보효과를 낼만한 사안들이 연속되면서 성장에 플러

스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기독교의 경우 “개 교회 성장이라는 경쟁관계가 되고, 선교를 위한 협력과 그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나눔의 삶에서도 실존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숫자의 증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선교 정책 및 부흥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진솔한 자기성찰과 사회와 함께 호흡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통해 안으로의 바른 개혁과 밖으로는 반 기독교적인 무화와 세력들의 도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05.29 오전 10:26:54]

공중은 기자 [[jekong@igoodnews.net](mailto:jekong@igoodnews.net)]

## 성찰과 회개로 새롭게 태어나자

기독교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는 같은 기간 74.4%가 늘었다고 한다. 이 같은 통계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인구 주택 총조사’결과인데다 3대 종교 중 기독교만 유일하게 준 것으로 나타나 교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계는 출산율 감소 등 자연적인 성장둔화와 함께 교회가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뒤쳐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상태에 있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또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불신자 전도보다는 신자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한 성장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교회가 이같이 정체 혹은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동안 다른 종교 특히 천주교의 교세가 크게 성장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요한다. 즉 종교를 찾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가! 라는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감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신세대에 알맞은 목회적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부 교단에서는 신세대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문화’로 판단,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교회의 내분과 일부 목회자의 일탈 등 세속화된 모습이 교회 이미지 훼손과 교인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

이제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경허하게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채우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뼈를 깎는 자정운동으로 고쳐가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각 교단에서 내는 통계치에도 거품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범적 삶은 교회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위상을 회복하는 길은 ‘진실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에 기초한 진실된 모습이야말로 감동목회의 지름길일 것이다.

6월1일 사설

## 5. 천주교 ‘대약진’

천주교는 한마디로 대약진했다. 10년전 259만에서 2배 가까운 514만여명으로 급성장했다. 무려 성장률이 74.4%에 달하는 수치이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천주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숫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몸조심을 하고 있다. 천주교는 늘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2004년 자체 조사에서는 453만여명이었는데 514만으로 늘어난 사실에 오히려 당황하며, 통계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할 정도이다.

기자는 1980년대부터 가톨릭신문을 보아왔다. 그때도 가톨릭신문은 천주교의 선교전략을 꼬집어 왔다. ‘냉담자 비율 늘어나, 교회 침체 우려’는 제목이 주 레파토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2배 가까운 대약진을 하고도 냉담자 비율 증가, 외형보다 내실이 우선이다,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논조이다.

천주교 교단이나 가톨릭신문은 종교인구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보도를 한 번 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성장원인도 종교학자의 말을 인용할 뿐 자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른 종교, 특히 불교에서 천주교의 대약진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만큼 불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불교계에서 배재수 기자는 ‘천주교 지도부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종교간 화해제스처를 보이며 사회참여 활동을 늘린 점’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도덕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 각 지역 성당의 조직화된 선교역량 강화, 잡음없는 안정된 조직력,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쌓은 양심적 종교라는 이미지, 관혼상제에 유연한 자세’를, 차차석 논설위원은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내적 조직관리의 체계화, 고학력자 층의 마음 사로잡음’을 꼽았고, 김종서 서울대종교학과 교수는 ‘천주교의 조직력, 청렴성, 결속력, 인권문제, 신도교육’을 제시했다.

### <가톨릭신문>

####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 514만6000명 10년 전보다 219만 명 증가…불교 개신교에 비해 급성장

10년 전보다 219만 명 증가…불교 개신교에 비해 급성장

천주교 신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국내 종교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월 25일 발표한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천주교 인구는 514만6000명으로 10년 전의 295만1000명보다 219만 명(74.4%)이 증가해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계청의 이러한 센서스 결과는 교회의 공식 통계와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2004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는 453만7844명으로 총인구 대비 9.3%로 집계됐다. 이를 이번 센서스와 비교하면 60만 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신자 수의 경우 조사에 응하는 가구원이 나머지 가구원의 종교까지 같이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주교가 급성장한 배경에 대해 서울대 김종서(종교학과) 교수는 천주교의 조직력 청렴성 결속력 등을 꼽았다. 특히 김교수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천주교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

해 정의의 종교로 인식된 것이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천주교가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 유연하게 열린 입장을 취함으로써 호감을 얻은 게 교세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은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 교회의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총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불교는 3.9%가 늘어난 1072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8%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1.6% 줄어든 861만6000명(18.3%)으로 집계됐다.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mailto:sang@catholictimes.org)

## 해설/2005년 한국교회 교세통계

성사생활 4명중 1명꼴로 감소

신자증가율 2.9% 소폭 증가  
선교 사목정책 재검토 불가피  
신학생 5년간 평균 2.8% 감소

2005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나타난 각종 지표는 한국교회에 드리우고 있는 희망과 그림자를 함께 읽게 한다.

2%대에 머물고 있는 신자증가율은 한국 천주교회도 타 종교처럼 저성장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선교 사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대신학교의 신학생 수는 138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5명이 늘어났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사제 성소가 부족해 애 태우는 서구 교회의 모습이 멀지 않은 한국교회의 미래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최근 10년 동안의 전년도 대비 신자 증가율은, 1995년 3.4%에서 계속 3%대를 유지하다가 2002년에 2.8%로 2%대로 내려앉더니 2003년에는 1%대로 급락하였다가 2004년 2.4%로 약간 반등한 뒤 지난해 2.9%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구별로는 의정부교구가 5.7%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원교구가 4.5%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원주 안동 청주교구는 1% 내외로 비교적 낮았다.

연령별 신자 구성을 보면 40대 연령의 신자가 전체 신자 대비 19.8%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성사 생활

10년 전인 1995년 신자 총수의 26.5%(91만2899명)였던 냉담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 2005년 통계에서는 10% 가까이 늘어나 역대 최고치인 36.4%를 기록했으며 숫자상으로는 169만9968명으로 집계돼 10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다.

또 2005년 영성체자 연인원은 8411만2586명, 고해성사자는 452만6440명으로 집계돼 신자들은 지난 한해동안 고해성사를 한번 보고 영성체는 평균 18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영성체 전 고해성사를 보는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 통해 본 신자와 교회

지난해 혼인건수 2만5672건 가운데 성사혼은 1만224건, 관면혼은 1만5448건(60.2%)으로 관면혼 비율이 2003년의 61.5%, 2002년의 61.8%에 비해 다소 낮아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성사혼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면혼은 자녀신앙교육

문제와 외딴 교우 문제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혼인교육에 대한 지속적 강조를 통해 성사혼 비율이 커질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사목인력 동향과 사목구 현황

주교를 포함한 성직자 총수는 2004년에 비해 118명이 증가한 3867명으로 이 가운데 교구 소속 신부가 3171명, 선교 수도 단체 소속 신부가 665명으로 집계돼 196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1960년 이후 증가율을 보면, 1960년대에는 평균 6.8%, 1970년대 3.1%, 1980년대 3.5%, 1990년대 6.2%, 2000년 이후에는 4.7%의 증가율을 보여 2000년대와 다소 주춤하긴 했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구 소속 성직자의 사목 유형별 분포를 보면, 본당사목 종사자가 1823명(57.5%), 사회·교육·출판·의료 분야 등 특수사목 종사자는 651명(20.5%)으로 10명 중 약 6명이 본당 사목에, 2명 정도가 특수 사목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6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mailto:sang@catholictimes.org)

### “교회 통계 정확성 높여야

최성우 신부, 인구센서스-교회통계 차이 분석

신자 수 등 정확한 교회 통계 산정을 위해서 통합양업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통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인구센서스)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교회 공식 통계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교구 홍보전산국장 최성우 신부는 최근 ‘한국천주교회의 보다 정확한 기초 통계 산출을 위한 제안’을 통해 인구센서스와 교회 통계 발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최신부는 제안서에서 1995년과 2005년 인구센서스와 교회통계 사이의 격차 원인을 분석, 1995년 통계 차이는 중복교적, 2005년 차이는 교적과 세례대장의 대조, 군 입대 후 세례자들의 교적, 교회 통계 합산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최신부는 이와 관련, 단기 과제로 전국 차원의 세례대장 및 교적자료의 대조 작업을 실시하고, 군 세례자의 효율적인 교적 생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전국 차원 통합양업시스템이 2008년부터 활용되면 대부분 해소될 문제라는 입장과 함께 통계와 관련된 전문성 제고, 인식 전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주호식 신부(서울대교구 전산실장)는 “통계상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중교적을 꾸준히 줄여왔고, 데이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7.2

박영호 기자 [young@catholictimes.org](mailto:young@catholictimes.org)

## 2005년 교세 통계, 주일미사 참례율 또 떨어져

재복음화 대책 마련 시급  
전년도 28.1%서 26.9%로

신자수 466만7283명

관념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사목 실천에 일대 전환과 쇄신이 요청되고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6월 10일 발표한 2005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한국 천주교 신자 4명 중 1명만이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을 엿보게 하는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는 전년도에 비해 12만9439명이 늘어난 466만72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자증가율은 2003년도의 1.9%에서, 2004년 2.4%에 이어 지난해 2.9%를 기록, 2.8%로 떨어졌던 지난 2002년 이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자를 총인구 4926만7751명에 대비하면 신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2% 높아진 9.5%를 차지했다.

지난해 새 영세자는 2004년에 비해 9460명이 늘어난 14만8175명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7만6398명, 여자가 7만1777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621명이 많았다.

주일미사 평균 참석자 수는 125만4572명으로 2004년에 비해 8만1793명이 증가했으나, 참례자 비율은 전년도의 28.1%에서 26.9%로 오히려 줄어들어 기존 신자들의 재복음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번 통계 결과 신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41.7%, 여성이 58.3%로 집계돼 오랫동안 지속돼온 성비 불균형 현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인구의 남녀 성비가 50.2%, 49.8%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비 불균형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한편 이같은 한국교회의 공식 통계는 보름 앞서 지난 5월 2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인구부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천주교 인구는 514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교회 통계와 비교하면 약 48만명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주교회의 사목연구소장 배영호 신부는 “통계청의 조사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가 전제하고 있는 ‘교적상의 세례받은 신자’ 여부가 아니라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고 의식하고 있는가’하는 자의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천주교 신자로서 자의식을 지닌 이들과 사회에 대한 보다 높은 교회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18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mailto:sang@catholictimes.org)

###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할 수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이 여물지 않은 제자들을 돌씩 짝지워 보내신 주님의 파견은 제자들에게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능력-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신’ 주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신 권한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 안에 오그라들게 하는 이기심과,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스스로 쌓은 담속에 갇혀 지내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신앙의 기쁨을 선포하는 신앙만이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면, 내 용서와 위로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흩어진 구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5월 25일 통계청에서는 작년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종교인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천주교 인구는 514만6천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1995년의 295만 1천명보다 7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천주교 신자만 219만5천명이 늘었다는 보고입니다. 이 기간에 전체 종교 인구가 237만3천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증가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천주교 신자 수효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표한 신자 수보다 약 48만 명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다른 종교들의 신자 수는 감소한 반면 가톨릭 신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결과와 교회가 파악한 신자 수보다도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보고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천주교 신앙의 고귀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천주교 신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파악한 숫자보다도 48만 명이나 많은 514만 명에 이른다는 것은 아직도 천주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러한 면에서 신앙을 선포해야 하는 신앙인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곧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국면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 수효가 10년 만에 74.4%나 증가했다는 것이 한국천주교회의 성장추세를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쉬는 신자 수가 전체 신자의 35%를 넘을 뿐 아니라 매년 영세자의 80% 이상이 1년 이내에 냉담을 하고 있으며, 주일미사 참여자 비율도 계속 감소하여 이제는 26%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자통계에 따르면, 주일미사 참여자의 비율은 20%선에 불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신자 숫자도 1999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514만 명에 이르면서도 신자 의무의 하나인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2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세상에 신앙을 증거하는 신앙생활 보다는 신앙을 자신의 생활 범위 안에서만 영위하려는 신앙의 사사화(私事化)의 경향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동기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폐쇄적이고 미성숙한 영적퇴행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바로 사도가 선포한 기쁜 소식에 대한 심오한 신앙고백은 머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에페 1, 12) 신앙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복음에 비추어 새롭게 변화시키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써 선전되는 구호나 광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 되고 선포될 때에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 지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짝 지워 파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복음 선포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을 참된 가치와 진실한 삶으로부터 갈라놓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김영수 신부 (전주 용머리본당 주임 [henkys@hanmail.net](mailto:henkys@hanmail.net))  
8.11

## 6. 원불교 ‘약진’

원불교는 이번 종교인구조사에서 약진을 했다. 8만7천여명에서 13만여명으로 늘어났다. 49.6%의 증가율이니 약진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원불교 언론은 사실 보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문서화 할만한 숫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1백만, 1백2십만교도 운운하다가 13만이란 숫자를 언급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교화에 마이너스를 가져올 우려에서다.

우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분석해보자. 사실 83년 9만6천에서 95년 8만7천으로 떨어졌기에 혹시 6만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않았다. 그래서 10년전보다는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으로 외형적으로는 약진을 하기는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약진한 원인은 ‘잡음 없는 안정된 조직력,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 깨끗한 이미지, 복지사업을 통한 대사회교화’를 들 수 있겠다. 천주교의 증가원인과 비슷한 면이 많다. 또한 천주교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교도는 증가했지만 출석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천주교의 고민은 곧 우리의 고민이다. ‘냉담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자는 교도가 많다, 출석률이 낮다, 무너만 교도인 경우가 많다’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원불교신문 사설은 이런 고민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 당당하고 자신 있게 교화하자

우리나라 종교인구는 전체 국민 대비 53.1%로 밝혀졌다. 국민 두 사람 중 한 명이 종교를 신앙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조사한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나타난 것으로 1995년 조사보다 인구증가는 5.6%이나 종교인구는 10.5% 증가되었다.

종교 인구를 보면 천주교, 불교, 원불교 순으로 증가되었고 유교, 기타 종교, 기독교 순으로 감소되었다. 성별 분포는 여자가 56.4%로 49.7%인 남자보다 약간 높았다. 나이별에서 여자는 60, 70대가, 남자는 50,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녀 같이 30대가 가장 낮았다.

교단은 이번 인구 주택 총 조사에서 1995년 조사 때 보다 4만3천 명이 증가된 13만 명으로 49.6%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국민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교세신장을 확인하면서 교화활성화를 이룰 계기를 잡아야겠다.

하나는 잠자는 교도를 깨웠다. 조사 전에는 잠자는 교도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지만 인구조사가 시작되자 교도 찾기에 인연들을 총 동원 하는 힘을 축적했다.

둘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교도 찾기에 나서면서 잠정적인 목표에 비관적인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교도 찾기 결과는 50% 신장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셋은 교세가 확장됨이 사실적으로 나타났다. 군중장교 파견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와 의 관계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교도 숫자였다. 4대 종단임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었다.

이제 인구조사에 나타난 그 숫자를 어떻게 예회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지금 한쪽에서 활발하지 못한 교화현장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단의 교화세 신장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인구조사에서 총부 뿐 아니라 전국 교당과 기관에서 보여준 그런 노력과 결심이면 인구조사에 나타난 숫자를 교당에 오게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기로 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뉘 마음의 끈을 묶자.

6월2일

## 7. 마무리

이상으로 종교언론을 중심으로 종교인구조사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종교계의 유일한 인쇄매체인 종교신문이 내부사정으로 5월부터 신문을 발행하지 않아 기사를 신지 못했다. 유교와 기타종교로 분류된 대순진리회,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등도 사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였으리라 본다. 이들 언론은 홈페이지조차 찾을 수 없어 언급하지 못했다.

이상의 자료를 검토해볼 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불교와 천주교의 사례라고 본다. 불교는 종교인구조사에서도 가장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천주교는 현재보다는 내실을 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타종교와 대립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무섭게 변하는 불교의 분석력과 내실을 탄탄하게 쌓아가며 외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는 천주교의 사례는 벤치마킹할만 하다.

무엇보다 불교와 천주교는 영적 구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의 수행열풍은 날로 강해질 것이고, 천주교의 가정을 중심한 영성운동도 탄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마음공부와 가정교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청소년교화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부모부터 교화해야 한다. 특히 종교적 회심의 시기인 40대 교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청소년교화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 토탈교회공동체 일 연구(부안 고창지구를 중심으로)

차윤재 교무(교회연구소)

### 1. 머리글

#### 1)변해야 산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제목이다. 우리는 2년전 출가 교화단 총단회에서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교회 정체의 극복과 교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교회 활성화와 교회성장을 위한 새로운 교회체제를 모색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변화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다.

그 후 교회훈련부에서는 교회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교회공동체를 추진하는 지역, 토탈교회시스템을 추진하는 지역, 청소년교회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당, 군부대 교회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당, 30-40대 교무 전진 배치 등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회성장을 위한 새로운 교회체제의 모색은 장기간의 교회정체와 교당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일년동안 의견수렴 · 공청회 · 연구 발표 등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교회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교단의 교회 조직에 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변화의 출발은 지역 또는 지구 단위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회의 틀을 구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새로운 교회체제 모색을 위하여 영광의 묘량 · 신흥 · 왕촌 지역을 출발점으로 하여 부안지구, 고창지구 등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교회체제를 추진해 가고 있다. 현재 묘량 · 신흥 · 왕촌 지역은 2명의 교무가 3개 교당에 겸임으로 발령을 받아 교화하는 형태로 교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부안지구는 지난 1년 동안 교구장 · 지구장 · 각 교당 교무 · 지구내 교도 회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6개 교당의 교무가 부안지구를 함께 교화하는 형태의 교회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고창지구는 교회 · 교육 · 복지 기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토탈교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의 여러 지역과 지구에도 교회 성장과 교회 활성화를 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교회 체제를 모색해 가고 있다. 특히 영산성지에는 정관평권역을 중심으로 영산성지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교단 근원성지인 영산성지를 교단 만대에 보존하고, 초기 교단의 역사로 남아있는 정관평권역을 교법실천의 공동체 도량으로 마련하여 특색 있는 종교성지, 모범적인 신앙수행 체험도량의 사례를 마련해 가고자 한다. 그 밖에도 임피지역 전곡지역 등에서 토탈교회체제를 추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는 교구와 지구, 지역에서도 현장교회의 제도약과 교단 인력수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회 체제를 구상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 2) 새로운 계기의 필요

장기간 교화가 정체되고,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 교단 중심에 대한 공동체 의식에 위기감이 감도는 지금, 교화 성장과 교화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기가(정책) 필요하다. 이 때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교화의 집중화와 다변화를 도모하고, 정책교당 기관을 지원하여 성공시킴으로써 교화성장의 한 모델로 삼고자 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화체제의 모색이 교단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소 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서 어찌면 한편으로 식상해져 있는 교화체제(1교무 1교당 체제)에 대한 변화는 정체된 교단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샘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의 핵심정책으로 되어있는 토탈교화시스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화체제의 시도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부안 교창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실무담당자로서 느낀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아직은 많이 미흡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화 형태의 추진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분명 미래 우리 교단 교화의 성장을 가져올 한 대안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

## 2. 교화공동체

### 1)정책의 이해

정책은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교단정책의 추진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방향이다. 그동안 교화활성화의 방향로를 찾고, 교단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방향의 교화정책들이 논의되어 왔다.

정책교당의 추진도 교단의 이러한 흐름에서 시작되었다. 교화정책을 적용하는 교당, 교당교화중심의 성향을 벗어나 특색 있게 교화하는 특성화 교당, 인구밀집지역에 전략적으로 설치하는 교당, 군 교화를 전담하는 교당 등이 그것이다.

교화훈련부에서는 이같은 교화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교화공동체를 추진하는 지역, 토탈교화시스템을 추진하는 지역, 청소년교화를 역점적으로 하는 교당, 군부대 교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당, 30-40대 교무 전진 배치 등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도표 참조)

그리고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교화의 집중과 다변화를 도모하고, 정책교당 기관을 지원하여 성공시킴으로써 교화성장의 모델로 삼고자 한다.

### 2)교화공동체란

교화공동체는 일정 지역을 담당하기에 알맞은 정도의 교당들을 하나의 단위(팀)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교화체를 말한다. 교화공동체의 인사는 팀(공동체) 단위로 하고, 교화

활동도 공동체(팀)별로 교화전략을 마련한다. 법회 교화단관리 순교 훈련 등 모든 일을 함께 하는데 이때 구성원간에는 적절한 직무분담이 이뤄지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평가도 공동체의 실적을 중심으로 한다. 공동체(팀)별 활동에 따른 공동 평가가 우선되고, 개인별 평가가 병행된다. 상호평가, 다면평가, 종합평가 등 새로운 평가체도를 개발 시행한다. 이는 단위교당별로 시행하는 소극적 교화에서 교당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교화력을 극대화시키고,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결합을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교화를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공동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신앙수행공동체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교화공동체의 추진은 교화활성화의 방향로를 찾고, 홀로사는 교무 등 교단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교단에서는 교화공동체를 비롯하여 여러 방향의 공동체가 논의된 바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안지구의 교화공동체와 고창지구 토탈교화공동체는 교단의 이러한 흐름에서 시작되었고, 각 지구의 교화공동체 추진도 이러한 흐름에서 시작되었다.

### 3. 부안지구 교화공동체

#### 1) 부안지구 교화공동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안지구 교화공동체는 정책지구로 선정된 교단의 첫 지구교화공동체로 추진되고 있다. 부안지구 교화공동체는 부안군 전체의 교화를 위해 부안지구를 단위로 구성하는 공동교화체제를 말한다. 현 지구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공동으로 부안지구 전체를 교화하는 체제를 구성하였다. 지구내 교당교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면서 부안군 전체를 교화해 가자는 것이다.

현재 교화의 양적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고 교단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도 희박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교화 구조도 교화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때 교역자가 더불어 교화하고 신앙·수행하며 서로간의 정의를 건내는 삶으로 교화해가는 노력을 하고자 부안지구 교화공동체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화공동체의 추진은 인력수급의 원활한 운영과 신도시로의 교당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실현 과제이다.

부안지구 교화공동체는 아직도 이러한 공동체의 본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공동체 태동의 시일이 짧고, 지구교역자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실현 의지의 부족이라 생각 된다. 앞으로 시간과 지구교역자들의 노력에 의해 점차 좋아질 것이라 본다.

## 2)부안교화공동체 추진

교화공동체의 추진은 원기 87년 10월 교화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화체제의 연구로 시작되었다. 그 후 원기 88년 2월 수위단 각단회에 보고 및 협의를 거쳤고, 원기88년 9월 출가교화단 총단회 교정중점 추진사항으로 보고되면서 영광과 부안지구에 시범적이 추진을 하기로 하였다. 먼저 원기 89년 1월 영광교구 묘량·신흥·왕촌 지역의 교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인사가 발령되었고, 부안지구는 교구장, 지구장, 지구교무, 지구교도회장단과 협의 후 원기89년 12월 교화공동체 정책지구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원기90년 1월 27일 교화공동체 시행(안) 안내 및 협의로부터 원기 90년 10월 공동생활관 완공까지 총 16차례의 모임을 통해 ‘부안지구 교화공동체 운영안’을 마련하였고, 부안지구 공동교화 계획,교당 현황과약을 위한 기초조사, 연간 부안지구 교화 및 교당교화 계획, 교화협의체 구성(재가, 출가), 생활공동체 운영안, 등을 마련하였다.

부안지구 교화공동체는 원기 91년 1월 부안지구 전재가 출가교도가 참석한 부안지구 교화공동체 총회(발기대회)를 통해 교화공동체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지구교무들은 공동생활관 입주 후 매주 수요일 아침 조찬공사를 통해 수시로 일어나는 지구의 협의사항과 공부를 해가고 있다.

그리고 교화의 중장기 구체적 계획은 현재 교화컨설팅팀(중앙총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안지구 교화컨설팅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교화계획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 3)부안지구 교화현황

부안지구의 최근 교화현황자료를 종합해 보면 법회출석과 교화단원수가 줄고 있다. 현재는 교무수 8명, 교당수 6개 교당, 교화단수 51, 교화단원수 606명, 평균법회출석수 201명이며, 각 교당별 최근 5년간 출석교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리고 기관은 훈련기관 3곳, 복지기관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인구총조사에서 원불교 교도수가 814명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현재의 단원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6년간 교화단과 교화단원수>

구분	교무수	교화단수						단원수					
		84	85	86	87	88	89	84	85	86	87	88	89
계화	1	6	6	6	7	3	3	47	47	46	46	58	50
동부안	1	2	4	4	4	4	4	44	49	55	62	63	53
백산	1	4	4	4	5	5	5	48	37	28	36	36	86
변산	1	4	4	4	4	4	4	31	40	43	43	43	43
부안	3	27	35	34	24	33	33	219	310	397	372	306	358
죽포	1	2	2	4	2	2	2	13	19	20	14	11	16
계	8	45	55	56	46	51	51	402	502	589	573	517	606

<표2 최근 6년간 법회 평균출석수>

구분	교무	평균출석수						법회개설	부속기관
		84	85	86	87	88	89		
계화	1	14	16	17	17	14	14	일 어	
동부안	1	26	31	40	30	31	28	일	
백산	1	15	15	20	20	19	24	일	
변산	1	12	11	13	15	12	12	일	
부안	3	196	160	157	152	129	118	일청학어	어린이집
줄포	1	8	10	7	7	4	5	일	
계	8	271	243	254	241	209	201		

<표3 부안지구내 기관현황 >

구분	원광선원	하섬해상훈련원	송산노인요양원	원대수련원
교역자	오광익 김원공	김영중 한재은 한수녕	김인경	김영중

<표 부안지구내 교도와 주민설문분석 결과 >

부안군 교도	교도화	56세 이후 여자 비중이 높음 원불교 신앙에 대한 두터운 믿음
	신심	교도로서의 자긍심 있음 신앙과 수행의 중요성 인식 교도 활동 기간과 비례 교리에 대한 이해와 확신은 부족
	교도 만족 요인	교당에 대한 친밀감 신앙생활 교리에 대한 신념, 확신
	시 사 점	계획적, 체계적인 공부 부족 신입교도 적응과 공부 안내 소홀 교도 단계별 심화학습이 미흡 현재 교화현황에 대한 재 점검 필요
부안군 지역주민	종교성	장년층의 종교에 대한 관심 20대 전반과 50대 후반 : 종교 관심 관심종교에 대한 관심 : 남자가 높음 종교 관심> 원불교 관심
	시 사 점	종교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 원불교 인지도 - 호감도로 부안지역 주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 5)부안지구 운영(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용은 부안지구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법실천과 지구 교화와 지구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부안지구는 원불교 전북교구내 부안지역의 교당·기관연합체로 교화공동체를 시범적으로 실현하는 정책지구이다.

②부안지구는 부안군을 교화하는 교당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지역교화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제3조(편제)** 부안지구는 국가의 기초지방자치단체권인 군단위 교화를 기준으로 편제하되, 교세에 따라 교구와 협의하여 인근으로 확대해 갈 수 있다.

**제4조(지구중심교당)** 부안지구의 중심교당은 부안지구 교화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당으로 정한다.

**제5조(법인·단체·연합회·기관)** ①부안지구는 교화, 교육, 자선, 훈련, 문화, 의료, 산업, 장묘, 장의예식 등의 사업을 위한 법인, 단체, 연합회, 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기관 등의 설립은 법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교제, 교의)** 교제, 교의는 중앙총부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7조(인사)** ①부안지구내 전무출신 인사는 전무출신인사임면 규정에 따른다.

②부안지구 재가임원의 인사는 재가교역자 인사임면규정에 따른다.

**제8조(정책)** ①부안지구에서는 교화, 교육, 자선의 교단 3대 목표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정책은 장기(12년), 중기(6년), 단기(3년)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③교당이 설치되지 않은 면단위에 대한 교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9조(시상)** 부안지구내 각 교당·기관·단체 및 개인의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연도말에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의무)** 모든 법인·교당·기관·단체는 자립체제를 갖추어야할 의무와 새로운 교화지 개척에 나서야할 의무를 갖는다.

### 제2장 출가교역자협의회

**제11조(지구장)** ①부안지구에는 지구장을 둔다.

②지구장은 부안지구를 교화를 위해 지구의 중요사항에 대한 회의를 주재한다.

④지구장이 유고 할 때에는 교구장이 위촉한 자가 지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출가교역자 협의회)** ①지구내 출가교역자로 구성하는 출가교역자 협의회를 둔다.

②출가교역자협의회는 지구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고,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지구

내 교무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열 수 있다.

### 제13조(출가교역자의 생활)

- ①지구장과 지구중심교당의 교무는 지구중심교당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 ②지구내 각 교당의 교무들은 부안지구 공동생활공간에서 생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근무는 각 교당으로 출·퇴근하면서 교화활동을 한다.
- ④공동생활 교무들의 생활규범은 도량상규에 의해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 시행한다.
- ⑤기관교무들의 생활은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제3장 지구운영위원회 및 교화

제14조(기능) 지구운영위원회는 부안지구의 의결기구이다.

제15조(구성) 지구운영위원회는 지구내 소속교당(선교소 포함)과 기관의 교무와 각 교당 교도회장, 기타 지구장이 지구교무들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의장단) ①지구운영위원회는 의장1인, 부의장 약간인을 둔다.

②지구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지구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여 지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의장 유고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④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임기) 지명직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8조(의결사항) 지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의 공동교화사업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지구의 교화·교육·훈련·자선·법제·재정·산업·문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
3. 지구내 각 법인, 법인에 관한 중요사항
4. 지구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5. 부의장 승인에 관한사항
7.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정기 지구운영위원회는 1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 지구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정족수) 지구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분과) ①부안지구의 집행기구로 교화기획, 청소년, 총무, 재무관리, 봉공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분과와 직무는 조절할 수 있다.

1. 교화기획분과: 교화, 훈련, 법회, 의식, 행사, 홍보, 순교, 연구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분과: 청소년·어린이의 교화, 훈련, 법회, 의식, 행사 등에 관한 사항.

- 3. 총무분과: 회의, 서무, 감사, 대외업무 및 타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4. 재무관리분과: 예·결산주관, 재정, 교산운영, 건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봉공분과: 대내·외 봉공활동, 교도친목과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③분과위원장과 위원은 지구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지구장이 위촉한다.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22조(전체교화 및 개척교화)** ①부안지구의 무연고 기관·단체·특정지역을 찾아 개척교화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당간에 연합으로 교화지를 점진적으로 확충해가야 한다.

②부안지구의 전체적인 교화는 교당들이 상호 협조하여 교화한다.

③부안지구내 기관의 운영은 지구토탈교화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제23조(교당교화)** ①단위교당의 교화는 교당규정에 의해 주임교무가 종전과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당의 교화와 관리수호에 재가교도를 발굴하여 적극 활용 한다

**제24조(훈련)** 부안지구는 관할지역의 교도와 일반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제25조(연합행사)** 특별행사는 지구별 연합행사를 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교구연합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부안지구 지구운영위원회는 단위교당의 교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 제4장 재 정

**제27조(재정)** 부안지구의 재정은 지구자립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산하 교당, 기관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성금으로 한다.

**제28조(예산총계주의)** 부안지구를 운영하기위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제29조(예산)** 예산은 지구운영위원회의 재정분과에서 편성하고 지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0조(결산)** 부안지구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총무분과의 감사를 받아 지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① 이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고창지구 토탈교화공동체

### 1)고창지구 토탈교화공동체

교단의 교화는 농경문화의 틀 속에서 시작하여 근대산업사회의 시기까지는 농촌사회를 선도하며, 사회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교화도 신장시키며 교단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교단은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교화는 장기간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단내 일부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도 희박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역자가 더불어 교화하고 신앙·수행하며 서로간의 정의를 건네는 삶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단위교당의 사업이 교화·교육·자선에 조화를 이루는 교당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일정지역에서는 교당과 기관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틀(시스템)속에서 교화해 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더불어 기관도 간접교화만의 장이 아닌 직접교화의 장이 되게 하고 교화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토탈교화공동체는 단위교당에서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화 교육 자선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는 교화를 함께해 보자는 것이다. 곧 토탈교화공동체란 지역 내 교당과 교당, 교당과 기관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라는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구와 지구 또는 교당 기관이 가진 모든 역량(곧 행정지원을 포함한 교화 교육 자선기관 등)을 다하는 교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고창지구는 토탈교화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화공동체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화공동체로 고창군 전체의 교화를 위해 고창지구를 단위로 구성하는 공동교화체제를 말한다. 곧 지구제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지구내 교당과 교단내 기관이 공동으로 고창지구 전체를 교화하는 토탈교화공동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곧 지구내 교당과 기관들이 공동체(기관장과 교당교무 겸임)를 형성하여 서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면서 고창군 전체를 교화해 가자는 것이다.

### 2)고창지구 토탈교화공동체 추진 방향

토탈교화 공동체의 추진은 다음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첫째는 교당과 기관을 묶어 정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당과 기관이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교화를 열어간다. 이때 교당과 기관의 장을 동일 인물로 인사하여 교화위주 사업이 종이 되게 한다. 그리고 교당은 기관에 교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여 교화의 장이 되게 한다. 또 기관에 종사하는 교역자는 교당교화를 활성화시키는 멤버(교도)로 그 역할을 다하게 한다.

셋째는 지역내 교당이 설치되지 않은 단위지역의 교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당과 기관의 교역자를 교당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담당시켜 정기적인 교화활동을 전개해 간다.

넷째는 교당과 별립되는 기관은 기관내에 법당을 마련하고 법회와 의식을 시행해 간다.

다섯째는 재정과 인력을 최소로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가 나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간다.

### 3)추진을 위한 실천사항

고창지구 토탈교화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지구장은 지구내 교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 교당과 기관, 교무를 통괄한다. (2) 지구의 각종 교화활동과 교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교화협의회를 실시(월1회)하고, 공동으로 연구, 학습, 훈련과 사회활동을 전개해 간다. (3)교당이 없는 지역을 인근 교당에서 담당하여 교화의 저변을 확대해 간다. 고창 교당은 신림면과 고수면, 대산교당은 성송면, 무장교당은 공음면, 흥덕교당은 성내면과 부안면, 부안면, 해리교당은 상하면, 심원교당은 아산면을 담당하여 교화해 간다. (4)지구내에 출장 전담교화자를 두고 이를 활용하여 연락소, 출장소로 발전해 간다. (5)청소년 전담 교화자로 하여금 학교, 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교화의 활로를 찾는다. (6)각 교당은 지구교화비를 일정액 부담한다. (전담교무 용금과 교화비 지원 등을 위하여) (7)지구내 교화자는 점차적으로 각기 특성을 살려 전문분야를 전담해 간다. (설교, 의식, 행사, 훈련, 순교, 문화 등) (8)향후 3년간 년차적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실현해 간다.(보고사항, 연구사항, 지원사항 등)

이와 같은 토탈교화공동체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먼저 관리에 있어서는 총부에서 정책 목표에 따른 추진정도를 점검하고(보고사항 종합, 추진정도 자료화, 연구발표 등을 병행), 교구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 관리와 보고사항을 점검하며, 교당과 기관에서는 진행과정을 정리하여 주기적인 보고와 연구사례발표를 해 간다.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는 총부에서 인력과 재정 그리고 연구와 정보를 지원하고, 교구에서도 재정과 인력을 지원한다.

또 고창지구 토탈교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관의 자체 노력방안(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1)기관 내 법당마련, (2)법회시행(직원, 이용자와 생활자 대상), (3)입교시키기, (4)도서실 마련(원불교 교서 비치), (5)비교도 교당으로 연결, (6)원불교 프로그램 시행, (7)인근 교당과의 유대, (8)기관 교무가 교당교화 중 법회 설교 및 의식 돕기,(9)교당의 경제에 도움주기, (10)통합복지모델 (지역아동센터+재가복지센터)추진, (11)마을별 한마당 잔치, (12)기타

그리고 위와 같은 토탈교화공동체를 실현하기위해서는 명료화 되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곧 현 교당 이외의 면 단위에 지역 연락소 및 출장 교화지를 연차적으로 몇 개씩 확보, 출석교도(일반, 청소년)의 증가에 전력하여 고창군 총 인구의 10%를 교도화 한다는 등의 구체적으로 계량화되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 4)고창지구의 토탈교회공동체 추진의 장점

고창지구는 다른 여타 지구에비해 토탈교회공동체를 추진하기위한 장점들이 있다. 그것은 (1) 토탈교회시스템의 한 형태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곳이다. (2)부안지역과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 교회 출발이 될 수 있다. (3)재정과 인력을 최소한의 투자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4)지구장의 출가 통솔과 인화 능력이 가능한 곳이다. (5)지구장이 군지역 유력인사로의 지위를 확보하여 그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6)교회와 교육 자선의 삼방면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7)고창지구장의 자발적 의지와 경제적 동원 능력을 최대 활용할 수 있다. (8)지구교역자들의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 5)고창지구의 교회현황

고창지구의 최근 교회현황자료를 종합해 보면 법회출석과 교회단원수가 늘고 있다. 현재는 교무수 11명, 교당수 6개 교당, 교회단수 53, 교회단원수 600명, 평균법회출석수 378명이며, 각 교당별 최근 5년간 출석교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리고 기관 운영은 교육기관 3곳, 복지기관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인구총조사에서 원불교 교도수가 1857명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현재의 단원수보다는 대단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당에 나오는 숫자 보다는 잠재된 교도의 수가 많으므로 희망적인 결과이다.

<표5 최근 5년간 교회단과 교회단원수>

구분	교무수	교회단수						단원수					
		85	86	87	88	89	90	85	86	87	88	89	90
고창	6	15	23	21	28	19		151	252	257	293	288	
대산	1	3	3	3	0	5		39	42	35	0	3	
무장	1	3	4	4	0	4		32	30	35	10	10	
심원	1	-	-	5	5	9		-	-	38	45	87	
해리	1	16	10	0	8	9		131	95	70	90	118	
홍덕	1	8	8	8	8	7		80	103	90	93	94	
계	11	45	48	41	49	53		433	522	525	531	600	

<표6 최근 5년간 법회 평균출석수>

구분	교무수	평균출석수						법회개설	부속기관
		85	86	87	88	89	90		
고창	6	114	137	142	142	235	219	일청학어	어린이집
대산	1	13	13	13	11	10	10	일	
무장	1	16	11	11	9	9	24	일어	
심원	1	-	-	24	28	34	40	일학어	
해리	1	35	43	47	50	54	44	일어	
홍덕	1	39	34	33	35	39	41	일학어	
계	11	217	238	270	275	381	378		

**<표7 기관현황>**

순	기관명	교무	비고
1	지평선중학교	정상훈 정상현	교육기관
2	고창원광효도의집	김기성	복지기관
3	한권속 효도의집(재가복지)	김기성	복지기관
4	고창원광보은의집	정상훈 정법일	복지기관
5	고수원광 어린이집	김수영	교육기관
6	고창원광 어린이집	김수영	교육기관

## 5. 교화정책지역 고려 및 협의사항

### 1)부안지구와 고창지구

부안지구교화공동체와 고창지구 토탈교화공동체는 지구단위의 공동체를 추진하는 지역이다. 먼저 정책적인 인사사령을 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의 공동체 추진은 많은 교역자가 함께 참여 한다. 그런데 참여하는 교역자들 중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없다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관심인 있는 교역자를 인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교화 공동체 추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 추진을 위한 인사와 연구, 초기 공동체 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의 투여가 필요하다.

끝으로 지구내 교당과 기관의 상호 유기적 관계형성이다. 교당과 기관의 협력은 공동체 교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두 기관사이의 인사공유를 비롯한 상호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 2)정책지역 또는 정책 교당

교단의 정책방향과 각 교구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정책지역 또는 정책교당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각 교당과 지역의 취지에 맞는 교화를 할 수 있도록 교구별로 1~3개 지역 또는 교당을 선정하는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교구장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통해 정책지역과 교당을 선정하는 것을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 선정을 협의한 곳이 없는 것또한 현실이다.

그 예로서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1)교화공동체 구성 지역 또는 지구, (2)토탈교화 시스템 추진 지역 또는 교당, (3)청소년교화 역점 교당, (4)군 교화 대상 교당, (5)신도시 중점교화 교당(개척교화 포함), (6)기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인 지역과 교당은 다음과 같다.

**<교구별 정책 교당/기관 현황과 협의요망 교당/기관>**

교구	분 야	시행중인 정책 교당/기관	협의요망 교당/기관	비고
강원	교회공동체			
	토탈교회시스템		화천 복지기관/춘천 요양원	
	청소년교회 역점			
	군교회	철원, 김화		
	신도시			
경기·인천	교회공동체			
	토탈교회시스템		수원 요양원	
	청소년교회 역점			
	군교회			
	신도시			
경남	교회공동체			
	토탈교회시스템		마산, 거창	
	청소년교회 역점			
	군교회			
	신도시			
광주·전남	교회공동체		소촌 하남 하남복지	
	토탈교회시스템		광양 복지기관/ 풍암 금호복지	
	청소년교회 역점			
	군교회			
	신도시	풍암		
대구경북·	교회공동체			
	토탈교회시스템		수성 지산복지	
	청소년교회 역점			
	군교회			
	신도시			
대전·충남	교회공동체		서구내 교당 기관(평송)	
	토탈교회시스템		동대전 중리복지 대덕수련관	
	청소년교회 역점	계룡		
	군교회	계룡		논산
	신도시			
부산	교회공동체			
	토탈교회시스템		덕천복지	
	청소년교회 역점		만덕 금곡청소년수련관	
	군교회			
	신도시			

교구	분 야	시행중인 정책 교당 또는 기관	협의요망 교당 또는 기관	비고
서울	교회공동체		지구별 1-3곳	
	토탈교회시스템	전곡	시내 각 복지관과 인근교당 연계	
	청소년교회 역점	안암		
	군교회			
	신도시			
영광	교회공동체	묘량 신흥 왕촌		
	토탈교회시스템			영광
	청소년교회 역점			
	군교회			
	신도시			
전북	교회공동체	부안지구(6교당)	교구내 1-3곳	
	토탈교회시스템	고창지구	효자 평화 복지기관/대성 효도의집	대성
	청소년교회 역점	노송		
	군교회			
	신도시			
제주	교회공동체		교구전체	
	토탈교회시스템			
	청소년교회 역점			
	군교회			
	신도시			
중앙	교회공동체		교구내 1-2곳	
	토탈교회시스템		시내 각 복지관과 인근교당 연계 임피 보은의집	
	청소년교회 역점		1곳 선정 필요	도원
	군교회	여산		
	신도시			
충북	교회공동체			
	토탈교회시스템			
	청소년교회 역점			
	군교회			
	신도시			

## 6. 마무리 글

왜 교화공동체인가?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교단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전통적인 교단 초기공동체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문제와 교단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전략으로서 공동체가 갖는 잠재성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 몇 수년 동안 교화정체와 교단중심에 대한 이탈현상은 잊혀졌던 교단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전무출신간의 수많은 모임들은 우리가 공동체적 존재임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때 교화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교단에 여러 가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단의 교당들 중 5급지 이하 교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교화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어 교화정체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살아남으므로 현장교회가 재도약 할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부안지구 교화공동체를 통해서도 교당간 협력과 농촌 지역의 교화에 대한 한 방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역자가 더불어 교화하고 신앙·수행하며 정의를 건네는 삶이 살아날 것이다.

고창지구 토탈교화공동체의 실현을 통해서도 지구단위교당과 기관의 협력과 교화 교육 복지를 통한 교화에 대한 한 방향을 터줄 것이다.

이두 지구의 새로운 시도가 정체된 교화에 활력을 부르는 동남풍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동안 교당과 기관의 양적인 성장으로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성과 능력에 부합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교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화조직에도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교단의 내·외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와 교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과정을 돌아보면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 된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하기로 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에 따라 그 시일의 장단은 있을지라도 꼭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를 계기로 부안과 고창이 아닌 다른 지역과 교당에서도 교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첨부자료2)

## 전라북도와 부안 고창 기초 자료모음

### 가. 부안의 현황

1. 부안의 역사
2. 부안의 상징
3. 부안의 지리적 현황
4. 부안군 연간 기금 운용 현황(2006년도기준)
5. 부안 발전 방향
6. 부안군 시책사업

### 나. 고창의 현황

1. 유래 및 연혁
2. 고창의 상징
3. 기본현황
4. 고창군 총 인구
5. 인구추이
6. 인구이동
7. 인구동태
8. 학교 총 개황
9. 종교단체
10. 재정
11. 고창군 주요시책 사업

### 다. 전북의 각종 현황

- 1) 국토면적
- 2) 행정구역
- 3) 인 구
- 4) 행정구역(구시군)/성/연령별 인구이동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 유치원
- 7) 초등학교
- 8) 중학교
- 9) 고등학교
- 10) 사설학원수
- 11) 신고체육시설
- 12) 문화공간
- 13)세입세출결산
- 14)재정자립도
- 15) 종교인구 현황(2005년)

## 부안군 현황

### 1. 부안의 역사

#### ○ 삼한시대

부안군은 삼한시대에는 마한(馬韓)이었으며 마한 54개국 중 지반국(支半國)이라 하였고, 백제시대에는 개화현(皆火顯)과 흥량매현(欣良買顯)의 두 현이 있었다.

#### ○ 신라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인 서기 757년(경덕왕 16)에 개화현을 부령(扶寧)이라 고쳐 부르고 흑계발(戒發)이라고도 하였으며 고부(古阜)의 속현이었고, 흥량매현은 희안(喜安)이라 고쳤으며 역시 고부에 속하였다.

#### ○ 고려시대

고려 때에는 보안현(保安縣)이라 하였으며, 별호(別號)를 낭주(浪州)라 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 우왕 때에는 부령현과 보안현에 각각 감무(監務)를 두었다.

#### ○ 조선시대

조선조 태종 14년부터 16년 사이에 부령현과 보안현을 합병했다가 떼었다 하기를 3,4차 한 후,

#### ○ 1416년~1423년

1416년(태종 16) 12월에 두 현을 합하여 부령(扶寧)의 부(扶)자와 보안(保安)의 안(安)자를 따서 부안현(扶安縣)이라 고쳐 부르고, 그 이듬해에 흥덕진(興德鎭)을 폐하여 부안에 귀속시켜 부안진(扶安鎭)이라 하고, 병마사로서 판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1423년(세종 5)에 첨절제사로 바꾸었다가 현감으로 고쳤다.

부안현이 부안군으로 개편된 것은 1895년(고종 32)에 전국의 부.목.군.현(府.牧.郡.縣)의 이름을 군(郡)으로 통일하여 부르게 되면서 부안군으로 되었고, 1914년 일제치하에서 행정구역을 고치면서 위도(蟬島)는 전남 영광군으로 비안도는 군산시로 떼어주고, 대신 고부군에서 백산(白山), 거마(巨麻), 덕림(德林)의 3개면을 부안군에서 편입시켰다.

#### ○ 1943년

1943년에는 부령면이 부안읍으로 승격되어 1읍 9면으로 되었고, 1963년 1월 1일자로 영광군에서 본군으로 위도면이 편입되었다.

#### ○ 1963년

1963년 행정구역의 조정에 따라 전남 영광군의 위도면(蟬島面)이 부안군으로 편입되었다.

#### ○ 1978년

1978년 계화도(界火島) 간척공사의 준공으로 3,968ha의 면적이 늘어 났으며, 1983년에 산내면(山內面)에서 진서면(鎭西面)을 분리하여 계화면과 진서면이 새로 생겨났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읍 12개면이며, 면적은 492.73km<sup>2</sup> (농경지 42%, 임야 42%, 기타 16%)이다.

우리 고장 부안군은 동경 126도 40분, 북위 35도 40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서쪽에 있어 군산시와는 바다로 접경하고, 북동으로 김제시, 남동으로는 정읍시, 남으로는 고창군과 접해 있다.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형태로 황해에 불쑥 나와 있는 반도로 되어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남서부는 변산이란 산이 겹겹이 싸여 있고, 북동부는 넓고 비옥한 평야를 이루고 있다.

해안선은 동진강 하구에서부터 줄포면 우포리까지 99km가 되며, 바닷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지 겨울철엔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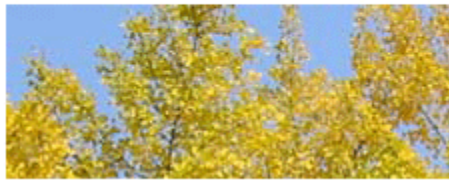
## 2. 부안의 상징

### 부안의 기



- 바탕색 - 백색  
순수하고 온화한 부안군민 표현
- 원호 - 적색  
전통이 내재된 아름다운 노을의 고장.  
화합과 꿈의 미래 관광중심의 고장 의미.
- 청색: 맑고 깨끗한 부안바다의 상징적 이미지.
- 녹색: 자연친화 환경,풍성한 산과 들의 상징적 이미지
- 군청색: 희망찬 미래를 향한 부안의 역동적 표현

### 부안의 나무 : 은행나무



- 나무의 긴 생명력과 웅장한 자태는 부안군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상징

### 부안의 꽃 : 철쭉꽃



-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하여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번영을 상징.

### 부안의 새 : 비둘기



- 인정 많고 온후한 군민이 모여사는 고장으로 평화와 화합을 상징

### 3. 부안의 지리적 현황

○ 위치

전라북도 남서쪽 변산반도에 위치하여 서쪽이 황해에 면해 있는 군이다. 지리적 좌표는 N35°8' ~ E126°8' ~ 126°55'이다. 동쪽은 정읍군과 북쪽은 동진강하구를 경계로 김제시와 남쪽은 곰소만을 경계로 고창군과 인접한다. 서쪽은 황해로 위도면에 속하는 위도, 식도, 정금도, 거룬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등의 섬이 있다.

○ 면적

전국	전라북도	부안군	비율	
			전국	전북
99,585.2km <sup>2</sup>	8,050.9km <sup>2</sup>	493.64km <sup>2</sup>	0.5%	6.1%

○ 행정구역

읍	면	법정리	행정리(마을)	반
1	12	98	501	1,108

○ 가구 및 인구

가구		인구(단위 명, 2006년 7월 기준)	
총27,227	27,227(100%)	총	64,155(100%)
농가	8,441(31%)	남	31,779(49.5%)
비농가	18,786(69%)	녀	32,376(50.5%)

### 4. 부안군 연간 기금 운용 현황(2006년도기준)

기금명	합 계 (단위 : 천원)	비율(%)
합계	14,973,618	
부안군청사건립기금	9,912,000	66.2
체육진흥기금	117,761	0.78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7,742	1.14
저소득층 장학기금	8,875	0.05
기초생활보장기금	700,764	4.7
노인복지기금	31,044	0.21
여성발전기금	173,702	1.16
영농안정지원기금	2,270,366	14.15
재난관리기금	744,921	4.96
중소기업육성기금	877,107	5.85
식품진흥기금	110,378	0.74
4-H후원회운영기금	8,958	0.06

## 5. 불안 발전 방향

### ○ 민선4기 군정방침

#### 가. 지표

-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불안 -  
· 민선4기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상생과 협력으로 군민 대화합을 이루고, 지역발전에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살기좋은 불안건설의 힘찬 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살맛나고 살고싶은 희망찬 생겨부안을 만드는 것이며

· 소득을 만들어 내는 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군정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 나. 방침

- 상생과 협력의 열린군정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 소득과 연계된 농수산업
- 미래를 가꾸는 교육복지
- 사계절 풍성한 문화관광

## 6. 불안군 시책사업

### ▣ 영상·문화·해양 체험레포츠 활성화로 다이내믹 관광을 실현하는 역동부안

- 영상산업육성 성과로 년 간 관광객 360만명에서 760만명 시대를 일구어낸 여세를 몰아 영상·문화특구지정과 청자전시관 및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 변산 비키니해수욕장 개발 사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영상·문화·해양 체험 레포츠 활성화로 다이내믹 관광을 실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달성하겠습니다.

#### 1) 영상의 메카 부안! 영상문화특구지정

- 부안영상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영상관련 종사자 및 저명인사)
- 부안영상체험관광 정착을 위한 세트장 정비 : 3개소, 50백만원
- 영화·TV작가 초청 세미나 개최 : 1회, 23백만원
- 한·중 공동제작드라마 「대한국인 김교각」 촬영 유치 : 도비 확보

#### 2)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관광개발 추진

- 부안해양테마파크 조성 : 1식 7,000평, 1,465백만원('05~'07, 50억원)
- 변산 비키니해수욕장 개발 : 토지공사 전복지사아 시행협약 체결
- 모항관광지 2단계 개발 추진 : 1식, 4,712백만원
- 석정문학관 건립 : 1,334백만원
- 해의길(Sun Road) 관광명소화 사업 : 1식, 2,927백만원('04~'07, 70억원)
- 청자전시관 건립 : 3,000백만원('04~'08, 250억원)
  - \* 위치 및 규모 : 보안면 유천리, 지상 3층 1,697평
  - \* 사업내용 : 전시관, 청자유물 구입, 부안도자기 도록제작등

#### 3) 일등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육성

-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관리 : 2개소, 88백만원
- 우리 풍물 및 일등 풍물단 육성 : 15개팀, 72백만원
- 문화재 보수·정비 : 8개소, 979백만원 (개암사 등)

#### 4) 스포츠마케팅으로 사계절 체험레포츠 천국 조성

- 레저와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 4개 분야, 160백만원
  - \* 대통령배 전국 요트대회, 제2회 불멸의 이순신 부안 전국 국궁 대회
  - \* 제8회 부안 33바람 전국 마라톤대회, 전북 연합회장기 축구 대회
- 전국 바둑대회 개최 : 3개 대회, 100백만원
- '스포츠 7330' 여가문화 활성화 : 50백만원

-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 : 140백만원
- 5)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1,000만 관광객 시대 도약
  - 관광홍보(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등) : 4개 분야 149백만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개최 : 1회, 전북관광협회와 공동 추진
  - 부안 이동 알림이 운영 : 부안마라톤동호인 100여명, 10백만원
- 6) 사계절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개최
  - 전국 짜즈대회 개최 : 1식, 200백만원
  - 제2회 갯벌올림픽 개최 : 1식, 77백만원
  - 제2회 33바람부안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 1식, 20백만원
  - 33바람부안 곰소갯갈축제 개최 : 1식, 20백만원

**▣ 농림어업의 융·복합 산업화로 소득창출과 농어촌을 활성화시키는 산업부안**

농림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산, 제품화, 판매까지를 아우르는 1차, 2차, 3차 산업이 함께하는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주민 소득 창출과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1)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육성
  - 지속 가능한 수산물 수산종묘 매입 방류 : 278,500미, 111백만원
  - 특화작목 재배 비닐하우스 지원 : 43동, 198백만원
  -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지원 : 10품목, 500백만원
  - RedSky 감자단지 조성 : 3개면, 800백만원
- 2) 친환경농업 확대 참살이 먹거리 생산
  -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 7,717농가 15,400ha, 15,896백만원
  -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 : 14,680ha, 4,375백만원
  - 친환경농업 및 토종농업 육성 : 4,142ha, 2,338백만원
- 3) 농촌어메니티 활용 농촌관광 활성화
  - 웰빙, 녹색농촌 체험마을 홈페이지 활성화 : 군 홈페이지 통합서비스
  - 체험 경관농업 들국화 어메니티 조성 : 10ha, 667백만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3개소, 600백만원
- 4) 미래를 내다보는 산림자원조성 및 개발
  - 산림경영모델링조성 : 1개소, 633백만원('05~'07, 25억원)
  - 산림육장 조성 : 1식 5ha, 400백만원
  - 조림, 지역특색녹화, 숲가꾸기 : 3개 분야, 509백만원
  - 임도 신설 및 보수 : 2식, 89백만원
  - 산불방지로 우수 산림자원 보전 : 21,064ha, 397백만원
- 5) 경쟁력 있는 농어업인력 육성
  -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 2개소, 20백만원
  -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 1,037명, 1,181백만원
  - 전문 농업인력 육성 지원 : 4개 분야, 77백만원
  - 전문 어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 활성화 : 2개 사업, 1,000백만원
- 6) 부안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마케팅 추진
  - 부안쌀 명품 브랜드 마케팅 : 2품목(푸르연, 바람빛), 80백만원
  - 부안 농특산물 명품세트 상품제작 지원 : 5종, 50백만원
  - 농산물 직거래 및 세일즈 마케팅 : 350백만원
  - 곰소갯갈 및 부안김 브랜드화 지원 : 2식, 25백만원
- 7) 안정적 농어업 생산기반 지원
  - 어선 감척 경쟁력 확보사업 지원 : 78척, 3,016백만원
  - 영농안정기금 조성 지원 : 643명 66억원 지원
  - 지방어항 건설 : 2개소, 875백만원
  - 자율관리 어업 육성 : 4개 어촌계, 500백만원
  - 육묘 상토 비료지원 : 9,000ha, 324백만원
  - 중소형 농기계 지원 : 236대, 282백만원
  - 밭 기반정비 : 48ha, 542백만원
- 8) 부안뽕 CF가축단지 등 우수 축산물 생산

- 가축질병예방 및 고급육 생산 지원 : 10개 분야, 274백만원
- 가축사육기반 확대 : 4개 분야, 974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5개 분야, 818백만원
- 축산환경 개선 지원 : 3개 분야, 585백만원

**▣ 지역고유의 특화산업 발굴육성으로 경제 살리기를 견인하는 특화부안**

지역고유의 향토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안누에타운 조성, 지역특화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시범 및 특화작목 육성, 임산물생산단지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특화사업 개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 1) 신 활력 부안누에타운 조성 : 584백만원('04 ~ '08, 135억원)
  - 위치 및 면적 :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 300,000평(집단지식지구)
  - 사업내용 : 양장산물 제품개발시설, 가공?판매시설, 전시관, 자연학습장
- 2) 향토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육성
  - 웰빙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설치 : 1개소, 833백만원
  - 꽃차 개발 실험기계 구입 및 연구시설 정비 : 2개 분야, 38백만원
  - 씨감자 양액 재배 및 변산 자생란 증식 : 16백만원
  - 부안쌀 품질관리 기술 보급 : 30백만원
- 3) 부안상설시장 특화개발
  -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설치 : 1식, 1,000백만원('05~'08, 60억원)
    - \* 위치 및 면적 : 부안읍 서외리 일원, 1,200평
    - \* 사업내용 : 부지매입, 실시설계 및 상설시장 시설 보수 등
- 4)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기업유치
  -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 : 부안병등 특산물 가공업체 유치 추진
  - 신재생 에너지테마파크권 주변 :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
  - 새만금·변산반도권 주변 : 관광개발 기업 유치 추진
  - 경제살리기 올인 장단지 시책 추진

**▣ 열린군정과 혁신역량 극대화로 일등자치를 선도하는 혁신부안**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통합하여 지역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서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1)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또는 공공부문투자액 30억 원 이상인 사업
  - 직접 이해당사자 1백 명, 간접 이해당사자 5백 명 이상인 정책·사업
    - 정책의 형성·홍보·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품질 및 성과를 높여 군민의 신뢰 확보와 만족도 제고
      - \* 공청회, 주민설명회 의무화와 갈등관리 등 체계적인 정책집행 및 관리
- 2) 33바람부안 축제 개최 및 범 군민 사랑 운동 전개
  - 시 기 : 2006. 9월 경
  - 장 소 : 새만금 방조제 및 부안읍 일원
  - 함께 하는 군민 3·6 운동
    - \* 3가지 높이기 운동 : 사랑, 행복, 보람
    - \* 6대 실천과제 : 고운말쓰기, 비방안하기, 기초질서 지키기, 공공시설 애용하기, 예절 지키기, 더불어 살기
      - 읍·면 단위 사랑나누기 행사 개최 : 년 중
- 3) 혁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스타공무원 육성
  - 팀제와 성과관리제 도입을 통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 \* '07년 팀제 전면시행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
  -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행정혁신 추진 : 4개 분야, 48백만원
  - 최고의 팀 만들기 위탁교육 및 벤치마킹 : 2개 분야, 146백만원
  - 좋은 일터 체험 캠프(등산 및 한마음 프로그램) : 전 공무원, 20백만원
  - 혁신마일리지제 도입 : 매월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10백만원

- 4) 원-스톱 감성행정 서비스 제공
  - 전 마을 인터넷 보급 및 지역주민 무료 정보화 교육 : 년 중
  - 군정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관 설치 운영 : 1식, 200백만원
  - 감성행정서비스 실천 모니터링 : 전 공무원 대상
- 5)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자치역량 강화
  - 군 관리계획 및 항공사진 측량 : 800백만원('05-'07, 52억원)
  - 일선행정조직 운영체계 개선
    - \* 일선행정지도자 혁신능력 배양 전문위탁교육 : 397명, 78백만원
    - \* 화합과 사기양양시책 : 3개 분야 196명, 64백만원
    - \* 이장 평가시스템 도입 : 년 2회
  -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 확보 : 3개소, 200백만원
  - 전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 13개소, 169백만원
- 6) 국내·외 교류 추진 동북아 중심도시 기반구축
  - 바둑 교류를 목적으로 한 한·중·일 3국 합동교류 추진
  - 국내·외 교류추진
    - \* 국내교류 : 포항시, 문경시
    - \* 국외교류 : 중국, 일본 지방자치단체
- 7) 나누미 장학재단 운영 파워엘리트 인재육성
  - 나누미 장학재단 운영 : 총 3,200백만원 기 확보('04~'06)
    - \* '06년 확보 : 1,250백만원(군출연 6억원,시상금 5.4억원,모금 8.1억원)
    - \* '06년 지원 : 360백만원(장학금 지급 6천만원, 학자금 지원 3억원)
  - ※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 범군민+출향기업인+사회단체 등 민간모금운동 전개 : 년 중

#### ▣ 미래 불안발전을 선도할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희망부안

자연과 1차 산업 만으로는 군민이 살아나갈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부안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영상·문화·관광산업이라면, 그 후 10년간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위시한 미래 첨단 과학 산업과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등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 1) 신재생 에너지테마파크조성 : 260억원('04~'09, 1,000억원)
  - 위치 및 면적 : 하서면 백련·장신리 일원, 11만평
  - 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단지,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
- 2)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 1조5천억원('07~'15)
  - 위치 및 면적 : 새만금 동진수역, 1,800만평
  - 추진방법 : 전북도와 공동 추진, 국내외 기업 유치
- 3) 독립 영상대학 설립 : 30백만원('06 ~'08, 300억원)
  - 위치 및 면적 : 부안군 일원, 5만평
  - 사업내용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道추진), 영상전문대학 설립
- 4) 진서계획도시 및 산업시설 조성
  - 진서계획도시 기반시설공사 : 1식, 765백만원
  - 부안 2농공단지 조성 : 150억원('05-'09)
    - \* 위치 및 면적 : 행안면 역리, 10만평
    - \* 사업내용 : 기본계획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 ▣ soc 및 생활환경의 친환경적인 도시마케팅을 경영하는 에코부안

전국 제일의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글씨 한자 새기고, 못 박는 것 하나 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환경과 주민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마케팅으로 친환경적인 SOC 및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1) 관광부안 도시마케팅 사업
  - 도시마케팅 가로망 정비 및 한전지중화 사업 : 6개소, 3,932백만원
  - 웰빙라이프라인 및 썬키스로드 확장 사업 : 2식, 700백만원
  -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진입로 개설 : 200m, 500백만원('06-'07, 2,400백만원)

- 2)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
  -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정비 : 13개 하천, 14,394백만원
  - 정주기반 확충 및 전원마을 조성 : 2식, 2,489백만원
  - 불안읍 소도읍 육성 : 1식, 1,000백만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 1개소, 1,395백만원
  - 선은천 자연형 하천조성 : 2km, 1,000백만원
  - 도시 숲 조성 : 3개소, 1,225백만원
- 3) 깨끗한 물 안정적인 공급
  - 상수도 사업(계량기,관로, 급수시설 등) : 1,771백만원
  - 워터파크 시설사업 : 186개소 10,833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 4개소 5,990백만원
  - 자연 정화형 마을하수도 보급 : 166개소, 7,145백만원
- 4) 쾌적하고 깨끗한 대중교통문화 조성
  -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 2식, 5,660백만원
  - 대중교통 운영 지원 : 3개 분야, 2,500백만원
  - 교통시설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 4식, 1,227백만원
- 5)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줄포자연생태공원조성 : 20만평, 630백만원('03~'08, 37억원)
  -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불편 해소사업 : 371개소, 2,303백만원
  - 쌈지쉼터공원 조성 : 2개소, 1,300백만원
  - 오지개발사업 : 1식, 1,279백만원
- 6)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4식, 10,317백만원
  - 하천정비사업 : 5식, 1,852백만원
  - 배수개선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 2식, 1,548백만원
  - 상수도 긴급누수 복구사업 : 400건, 375백만원
- 7) 생활환경 복원 및 환경시설 확충
  -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 : 1식, 330백만원
  - 환경시설 확충사업 : 8개소, 1,625백만원
  - 폐기물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 : 15,400㎡, 300백만원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 200톤, 200백만원

#### ☐ 군민의 복지수요에 눈높이를 맞춘 함께하는 행복공동체를 구축하는 행복부안

수요자 중심의 더불어 사는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기반 서비스 및 구 성원 모두가 참여해 희망을 주고 함께하는 행복공동체를 구축하여 선진 복지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1) 함께하는 역동적 지역사회복지·실현
  - 종합사회복지타운조성 : 35,000평, 720백만원('03~'08, 26,100백만원)
  - 함께하는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3,300세대, 6,500명, 11,326백만원
  -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 추진 : 1개소, 2,285백만원
- 2) 전 군민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질병 없는 부안 만들기 보건진료사업 : 519백만원
  - 이 튼튼 교실 운영 및 구강보건사업 : 4개 분야, 115백만원
  - 급·만성 전염병 관리 : 33,140명, 236백만원
  -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 53개소, 72백만원
- 3)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 4,350세대, 7,300명, 17,882백만원
  - 노후 공공의료기관 신·증축 : 3개소, 995백만원
  -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 : 6,367명, 192백만원
  - 방과후 학습교실 분관설치 : 5개소, 163백만원('03~'07, 652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결식 해결 : 814명, 499백만원

- 4)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 추진
  - 실버천국조성 경로지원사업 : 4개 분야, 4,430백만원
  -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 1개소 50병상, 1,584백만원
  - 건강한 장수프로그램 지원 건강증진사업 : 8개 분야, 198백만원
  - 건강과 보람의 경로당 운영 : 341개소, 830백만원
  - 부안휴먼카드 발급 활용 : 1,000명, 13백만원
  - 노인 일감 갖기 운영 : 2개 분야, 169백만원
- 5)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질 높은 문화수준 향유
  - 예술회관 보수 및 보강 공사 : 840백만원
  - 문화체육공간 확대조성 : 5,090백만원(보조경기장, 체육시설 조명탑)
  - 스포츠파크 주차장 조성 : 1식, 600백만원
  - 스포츠파크 종합레포츠타운으로 확대조성 : 1,000백만원
  - 군민 참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 연중
- 6) 저 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
  - 영·유아대상 공립 보육시설 건립 : 1식, 300백만원
  - 1가정 3자녀 갖기 운동 : 1,117명, 168백만원
  - 아동 보육사업 : 24개소, 900명, 2,051백만원
  - 학교 급식비 지원 : 2,164명, 300백만원
- 7) 관광부안에 걸 맞는 일등 위생업소 프로젝트
  - 부안 '맛'산업화를 위한 경영마인드 구축 : 모범음식점 50개소, 30백만원
  - 일등 접객업소 만들기 위생수준 향상사업 : 1,618개소, 20백만원
  -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 : 160개소, 5백만원

# 고창군 현황

## 1. 유래 및 연혁

현재의 고창군은 전라북도의 6시 8군의 하나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고창 무장 흥덕 세 고을이 병합되어 생긴 명칭이다.

병합되기 이전 고창은 본래 백제의 모량부리현인데 신라 삼국통일 이후 경덕왕 16년 고창현으로 고쳐 이웃 무령군(지금의 영광)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 때에는 고부군의 영현이 되었으며 이웃 상질감무가 겸임했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원년 두 현에 각기 감무를 두었고, 그 뒤 현감을 두어 나주진관에 소속되었다가 고종 32년 군으로 고쳐졌으며 건양 원년 전라남도에서 소속시켰고 융희 원년 전라북도로 소속되었으며, 1914년 흥덕 무장을 병합했다.

흥덕은 본래 백제의 상질현인데 신라 경덕왕 16년 상질이라 고쳐 고부군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에 들어서서는 장덕, 창덕을 거쳐 흥덕으로 고쳐졌는데 장과 창은 충선왕과 창왕의 이름이었기에 그걸 피하느라고 고쳐진 것이며, 감무를 두어 이웃 고창을 겸임시켰고, 조선조에 들어서서는 따로 각기 감무를 두었다가 뒤에 현감을 두었으며 진관으로는 전주, 토포로는 나주, 속오로는 입암산성에 속했고, 고종 32년 군으로 고쳐졌고(1904년에 고부의 부안면이 편입되었다)

건양 원년 전라남도에서 소속시켰다가 융희 원년 전라북도로 소속되었으며 1914년 고창에 병합되었다. 무장은 본래 무송과 장사 두 고을이 병합된 고을이다. 무송은 백제때 송미지현인데 신라 경덕왕 16년 무송현으로 고쳐 이웃 무령군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에 들어서도 그대로 내려왔으며, 장사는 백제때 상로현인데 신라 경덕왕 16년 장사현이라 고쳐 이웃 무령군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에 들어서도 그대로 내려왔으며, 뒤에 감무를 두어 무송을 겸임시켰고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 17년 이 두 고을을 병합하여 무장이라고 하고 진을 설치하여 병마사를 두어 현 행정까지 겸임시켰다.(나주진관) 세종 5년 병마사를 첨절제사로 고치고, 그 뒤 현감을 두었다.

고종 32년 군으로 되어 전주부에 속했다가 건양 원년 전라남도에서 소속시켰고 융희 원년 전라북도로 소속시켰으며, 1914년 고창군에 병합되었다. 1914년 3군은 병합하여 17면으로 갈랐다가 1935년 오산, 벽사, 석곡 3면을 없애 그 이웃에 편입시켜 14면으로 되고, 1955년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3면의 체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 고창의 상징



### ▶ 군기

호국의 상징인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하여 선사시대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청정함의 상징인 나뭇잎을 조합한 형상으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이자 수려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고창을 상징화하였다. 전체적으로 고창의 머리글자인 '고'자로 읽히도록 표현하였다.

### ▶ 군목

- **군의 나무 : 은행나무**
- 강한 의지와 청백, 순백으로 깨끗한 환경 속의 군민임을 상징



▶ 군조

군의 새 : 비둘기

· 군민의 애향심과 온순성으로 군민 평화와 화합을 상징



▶ 심벌마크



심벌마크는 호국의 상징인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하여 선사시대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청정함의 상징인 나뭇잎을 조합한 형상으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이자 수려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고창을 상징화하였다. 전체적으로 고창의 머리글자인 '고'자로 읽히도록 표현하였다.

### 3. 기본 현황

▶ 위치

전라북도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동경은 126도 26분으로부터 126도 46분에 이르고, 북위는 35도 18분으로부터 35도 34분에 달하여 그 연장이 동서 31km, 남북 31.5km 이며, 동북은 본도 정읍시, 부안군, 동남은 전남 장성군, 영광군에 인접하고 서북부 일대는 서해에 임하고 있다.

군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 · 극점		연장거리	면적
		지명	극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동경 126° 42' 북위 35° 29'	동단끝	고창군 신림면 가 평리	동경 126° 46' 북위 35° 17'	동 - > 서 거 리 31.0Km 남 - > 북 거 리 31.5Km	606.833km <sup>2</sup>
	서단끝	고창군 상하면 자 룡리	동경 126° 26' 북위 35° 26'		
	남단끝	고창군 대산면 지 석리	동경 126° 29' 북위 35° 18'		
	북단끝	고창군 부안면 봉 암리	동경 126° 30' 북위 35° 34'		

기후



· 맑음	100일
· 흐림	176일
· 폭풍	0일
· 서리	138일
· 안개	15일
· 눈	21일
· 뇌전	5일
· 비	81일

4. 고창군 총인구

(2005.12.31기준)

구분	세대	합 계	남	여
고창군	26,158 세대	63,992 명	31,489 명	32,503 명

읍면별 세대 및 인구수[2004.12.31 기준]

(단위 : 세대.명)

구분	합계				한국인				외국인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고창군	26,158	63,992	31,489	32,503	26,158	63,676	31,362	32,314	316	127	189
고창읍	7,028	20,208	9,939	10,269	7,028	20,160	9,926	10,234	48	13	35
고수면	1,247	3,086	1,551	1,535	1,247	2,989	1,478	1,511	97	73	24
아산면	1,537	3,418	1,724	1,694	1,537	3,390	1,710	1,680	28	14	14
무장면	1,669	3,873	1,918	1,955	1,669	3,857	1,917	1,940	16	1	15
공음면	1,487	3,413	1,724	1,689	1,487	3,400	1,723	1,677	13	1	12
상하면	1,378	3,076	1,462	1,614	1,378	3,069	1,461	1,608	7	1	6
해리면	1,686	3,824	1,827	1,997	1,686	3,803	1,825	1,978	21	2	19
성송면	1,073	2,320	1,159	1,161	1,073	2,304	1,154	1,150	16	5	11
대산면	2,059	4,736	2,386	2,350	2,059	4,712	2,379	2,333	24	7	17
심원면	1,363	3,386	1,667	1,719	1,363	3,375	1,665	1,710	11	2	9
흥덕면	1,739	4,044	1,948	2,096	1,739	4,030	1,946	2,084	14	2	12
성내면	1,153	2,548	1,235	1,313	1,153	2,538	1,235	1,303	10	-	10
신림면	1,215	2,747	1,356	1,391	1,215	2,747	1,356	1,391	-	-	-
부안면	1,524	3,313	1,593	1,720	1,524	3,302	1,587	1,715	11	6	5

▶ 면적

기준년도: 2004.12.31 (단위 : km<sup>2</sup>, 개소)

읍면별	면적(km <sup>2</sup> )	구성비(%)	군				
			읍	면	리		반
					법정	행정	
<b>고창군</b>	<b>606.833</b>	<b>100</b>	<b>1</b>	<b>13</b>	<b>189</b>	<b>557</b>	<b>1,345</b>
고창읍	42.505	7	1	-	18	85	224
고수면	45.578	8	-	1	14	36	79
아산면	74.741	12	-	1	16	33	85
무장면	43.777	7	-	1	16	39	95
공음면	50.048	8	-	1	12	45	88
상하면	32.955	5	-	1	9	36	90
해리면	39.496	7	-	1	12	46	102
성송면	36.250	6	-	1	11	34	66
대산면	43.842	7	-	1	15	43	113
심원면	39.232	6	-	1	10	26	71
흥덕면	33.361	5	-	1	16	41	95
성내면	30.855	5	-	1	13	30	81
신림면	40.898	7	-	1	13	26	70
부안면	53.295	9	-	1	14	37	86

## 5. 인구추이

<2004. 12. 31>

년	세대 <sup>1)</sup>	인구 <sup>2)</sup>	남	여	인구밀도(명/km <sup>2</sup> )	세대당	65이상	외국인	남	여
1991	25,348	90,299	43,538	46,761	149.7	603.08	3.6			
1992	26,305	95,858	47,384	48,474	158.9	603.05	3.6			
1993	26,391	91,855	45,523	46,332	150.0	603.99	3.5	9,633	22	12 10
1994	26,157	88,038	43,556	44,482	145.7	603.89	3.4	10,664	30	15 15
1995	26,296	85,239	42,088	43,151	140.4	606.77	3.2	10,082	59	28 31
1996	26,408	82,656	40,732	41,924	136.2	606.68	3.1	10,432	66	22 44
1997	26,258	79,823	39,287	40,536	131.5	606.87	3.0	10,678	88	27 61

1998	26,370	78,686	38,814	39,872	129.7	606.89	3.0	11,433	99	20	79
1999	26,251	76,219	37,658	38,561	125.6	606.89	3.0	11,794	120	20	14
2000	26,449	74,227	36,590	37,637	122.3	606.89	2.8	12,356	123	21	102
2001	26,450	74,413	36,569	37,535	122.6	606.89	2.8	12,667	128	23	105
2002	26,361	69,816	34,287	35,529	115.0	606.85	2.6	13,111	159	27	132
2003	26,277	69,878	34,082	35,796	115.2	606.82	2.7	13,600	239	73	166
<b>2004</b>	<b>26,016</b>	<b>65,449</b>	<b>32,190</b>	<b>33,259</b>	<b>107.9</b>	<b>606.83</b>	<b>2.5</b>	<b>13,964</b>	<b>246</b>	<b>85</b>	<b>161</b>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1) 98년 부터 외국인 세대수 제외.  
 2) 외국인 인구 포함

## 6. 인구이동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명, %

연도	총 이 동				도내이동				시 도 간					
	전입		전출		시군간									
		이동 (%)	Out	이동 (%)	전입	이동 (%)	전출	이동 (%)	전입	이동 (%)	전출	이동 (%)	순이동	이동 (%)
1999	7,135	10.0	9,412	11.9	1,723	2.2	2,306	2.9	3,729	4.7	5,423	6.9	-2,279	-2.9
2000	7,528	10.0	9,302	12.2	1,795	2.4	2,209	2.9	3,550	4.6	4,910	6.4	-1,774	-2.3
2001	9,408	10.0	9,028	11.8	1,936	2.5	2,003	2.6	5,565	7.3	5,118	6.7	380	0.5
2002	6,891	9.6	11,122	15.4	1,751	2.4	2,024	2.8	3,188	4.4	7,146	9.9	-4,321	-5.9
2003	9,711	13.9	9,283	13.3	1,895	2.7	2,292	3.3	5,877	8.4	5,052	7.2	428	0.6
<b>2004</b>	<b>6,459</b>	<b>9.5</b>	<b>10,666</b>	<b>15.8</b>	<b>1,673</b>	<b>2.5</b>	<b>2,010</b>	<b>3.0</b>	<b>3,138</b>	<b>4.6</b>	<b>7,008</b>	<b>10.4</b>	<b>4,207</b>	<b>6.2</b>

자료 : <인구이동통계연보> 1)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 의한 자료이며, 시군내이동은 전입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음 .

## 7. 인구동태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쌍, 명

연도별	출생			사망(명)			혼인	이혼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643	--	--	861	--	--	372	108
2000	639	--	--	861	--	--	372	108
2001	566	--	--	862	--	--	313	129
2002	461	256	205	839	458		236	119

						381		
2003	377	204	173	804	442	362	261	148
<b>2004</b>	<b>385</b>	<b>204</b>	<b>181</b>	<b>750</b>	<b>375</b>	<b>375</b>	<b>256</b>	<b>107</b>

자료 : <인구동태통계연보>

## 8. 학교 총 개황

2004년 4월 1일 현재

연도 및 학교별	학 교 수	학 급 수	교 실 수	학생수			교직원수					
				계	남	여	교원수			사무직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86(2)	513	520	13,661	6,714	6,277	936	536	400	183	166	56
2000	80(2)	477	477	12,232	6,410	5,812	878	475	403	219	169	50
2001	77(1)	465	465	11,352	5,991	5,361	866	491	375	225	169	56
2002	75(1)	482	497	11,464	5,841	5,053	998	625	378	227	164	63
2003	74	462	465	10,263	5,530	4,722	829	470	360	221	159	62
<b>2004</b>	<b>72</b>	<b>455</b>	<b>458</b>	<b>9,868</b>	<b>5,342</b>	<b>4,526</b>	<b>842</b>	<b>481</b>	<b>361</b>	<b>216</b>	<b>149</b>	<b>67</b>
유치원	27	37	40	580	302	278	45	-	45	3	-	3
초등학교	24	209	209	4,218	2,256	1,962	315	176	139	120	80	40
중학교	14	89	89	2,062	1,069	993	216	115	101	44	30	14
고등학교	6	108	108	2,749	1,488	1,261	244	170	74	40	33	7
일반계고	2	27	27	724	702	22	62	46	16	14	10	4
실업계고	4	81	81	2,025	786	1,239	182	124	58	26	23	3
기능대학	1	12	12	259	227	32	22	20	2	9	6	3
자료 : 고창군교육청, 각 해당고등학교, 고창기능대학				학교수 합계의 괄호는 초등학교의 분교								

## 9. 종교단체

200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개소, 명

연도 읍면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기타종교	
	교당	교직	교당	교직	교당	교직	교당	교직	교당	교직	교당	교직	교당	교직	교당	교직
1998	176	200	9	3	61	120	3	6	-	-	2	4	-	-	9	6
1999	108	200	4	3	32	120	3	3	-	-	5	10	-	-	3	3
2000	102	185	4	4	38	130	3	3	-	-	5	-	-	-	3	3
2001	103	105	4	4	38	135	1	1	-	-	5	8	-	-	2	2
2002	104	187	4	4	38	130	1	1	-	-	6	11	-	-	2	2
<b>2003</b>	<b>105</b>	<b>189</b>	<b>4</b>	<b>4</b>	<b>38</b>	<b>130</b>	<b>3</b>	<b>3</b>	-	-	<b>6</b>	<b>11</b>	-	-	<b>2</b>	<b>2</b>
고창읍	17	61	1	1	9	19	2	2	-	-	1	6	-	-	1	1

고수면	4	11	-	-	3	3	1	1	-	-	-	-	-	-	-	-
아산면	7	9	-	-	7	89	-	-	-	-	-	-	-	-	-	-
무장면	7	10	-	-	3	3	-	-	-	-	1	1	-	-	1	1
공음면	7	8	-	-	-	-	-	-	-	-	-	-	-	-	-	-
상하면		6	-	-	-	-	-	-	-	-	-	-	-	-	-	-
해리면	10	13	-	-	1	1	-	-	-	-	1	1	-	-	-	-
성송면	5	7	-	-	4	4	-	-	-	-	-	-	-	-	-	-
대산면	8	10	-	-	3	3	-	-	-	-	1	1	-	-	-	-
심원면	6	9	-	-	1	1	-	-	-	-	1	1	-	-	-	-
흥덕면	7	10	1	1	2	2	-	-	-	-	1	1	-	-	-	-
성내면	7	10	-	-	-	-	-	-	-	-	-	-	-	-	-	-
신림면	5	8	-	-	4	4	-	-	-	-	-	-	-	-	-	-
부안면	11	17	2	2	1	1	-	-	-	-	-	-	-	-	-	-
자료: 문화관광과																

## 10. 재 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규 모			자 주 재 원				재정자립도 (%)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일반회계)	재정보 전금	
1999	125,274	118,413	6,861	16,824	6,725	10,099	-	14.2
2000	146,485	137,652	8,833	14,549	6,741	7,808	-	10.6
2001	163,698	150,635	13,063	19,450	6,805	12,645	-	13.8
2002	153,118	144,122	8,996	17,521	6,941	8,672	1,908	12.2
2003	181,804	172,220	9,584	20,116	7,209	11,081	1,826	11.7
<b>2004</b>	<b>198,731</b>	<b>190,336</b>	<b>8,395</b>	<b>21,431</b>	<b>7,611</b>	<b>11,940</b>	<b>1,880</b>	<b>11.3</b>
자료 : 재정과								

## 11. 고창군 주요시책 사업

### 1)군정방침

#### (1)군민을 더 행복하게

군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군민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함.

#### (2)행정은 더 믿음있게

군민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투명한 공개행정과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으로 신뢰 받는 공직자상 구현.

#### (3)개발은 더 활기차게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도시기반을 정비하고, 특색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활기찬 지역개발

(4)문화는 더 품위있게

문화유산의 개성있는 개발과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등 품위있는 문화육성

**2)주요시책업무**

- (1)경쟁력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어업 육성
- (2)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관광산업 육성
- (3)활력있고 건강한 생활복지 사회 실현
- (4)미래를 대비하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 (5)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

**3)역점추진사업**

- (1)고창군 소도읍 육성사업
- (2)고창군 문화센터 건립
- (3)고인돌 공원 조성사업
- (4)서해안 IC 직결도로 개설
- (5)흥덕 농공단지 조성
- (6)선운산 생태 숲 조성
- (7)구시포 국가어항 개발
- (8)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 (9)생활체육 테마 공원 조성
- (10)종합사회 복지관 및
- (11)노인복지회관 건립
- (12)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
- (13)남고창 IC 개설

**4)주요 현안사업**

- (1)고창군 실내체육관 건립
- (2)부창대교 건설
- (3)고창~성송간 국도 4차선 확포장
- (4)내죽도 연륙도로 개설
- (5)외죽도 해양 관광자원 개발
- (6)선운산~공음간 국도 4차선 확포장
- (7)운곡지구 관광지 조성
- (8)노인 종합복지 타운 건설
- (9)문수선 국가지원 지방도(49호) 개설

**다. 전북의 각종 현황**

**1) 국토면적**

국토면적 (km <sup>2</sup> )	2002	2003	2004
전라북도	8050.94	8050.65	8052.69
전주시	206.22	206.22	206.25
군산시	378.06	378.19	380.06
익산시	507.01	506.97	507.11
정읍시	692.88	692.81	692.83
남원시	752.79	752.81	752.81
김제시	545.28	545.2	545.19
완주군	820.83	820.92	820.95
진안군	789.07	789.09	789.1
무주군	631.85	631.84	631.76
장수군	533.64	533.65	533.63
임실군	597.13	597.15	597.12
순창군	495.69	495.7	495.75
고창군	606.85	606.82	606.83
부안군	493.64	493.28	493.29

## 2) 행정구역

시점 :2005	읍·면·동 *	읍	면	동	법정동
	개	개	개	개	개
전라북도	251	14	145	92	216
전주시	40 -	-	-	40	53
군산시	30	1	10	19	52
익산시	29	1	14	14	31
정읍시	23	1	14	8	27
남원시	23	1	15	7	23
김제시	19	1	14	4	30
완주군	13	2	11 -	-	-
진안군	11	1	10 -	-	-
무주군	6	1	5 -	-	-
장수군	7	1	6 -	-	-
임실군	12	1	11 -	-	-
순창군	11	1	10 -	-	-
고창군	14	1	13 -	-	-
부안군	13	1	12 -	-	-

## 3) 인 구

시점 :2005	인구(내국인)	남자	여자	성비
----------	---------	----	----	----

	명	명	명	%
전라북도	1,778,879	874,662	904,217	96.7
동부	1,236,635	613,724	622,911	98.5
읍부	132,252	65,281	66,971	97.5
면부	409,992	195,657	214,335	91.3
전주시	622,092	308,048	314,044	196.4
전주시 완산구	348,448	171,817	176,631	97.3
전주시 덕진구	273,644	136,231	137,413	99.1
군산시	249,212	125,529	123,683	101.5
익산시	306,974	152,074	154,900	98.2
정읍시	115,416	55,349	60,067	92.2
남원시	85,828	41,584	44,244	94
김제시	90,376	43,358	47,018	92.2
완주군	79,104	39,771	39,333	101.1
진안군	23,915	11,694	12,221	95.7
무주군	22,310	10,712	11,598	92.4
장수군	20,486	9,786	10,700	91.5
임실군	25,682	11,970	13,712	87.3
순창군	26,250	12,209	14,041	87
고창군	55,994	26,415	29,579	89.3
부안군	55,240	26,163	29,077	90

#### 4) 행정구역(구시군)/성/연령별 인구이동

시점	총전입	총전출	시도내이동 - 시군구내	시도내이동 - 군구간전입	시도내이동 - 군구간전출	시도간전입	시도간전출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전라북도	2005.05	23,822	25,525	12,446	5,692	5,692	5,684	7,387
	2005.06	22,581	24,093	11,492	5,512	5,512	5,577	7,089
	2005.07	20,264	21,287	10,010	4,871	4,871	5,383	6,406
	2005.08	24,424	26,328	12,224	5,811	5,811	6,389	8,293
	2005.09	23,950	25,298	12,041	5,966	5,966	5,943	7,291
	2005.10	23,384	25,270	12,418	5,502	5,502	5,464	7,350
	2005.11	28,472	30,066	15,781	6,765	6,765	5,926	7,520
	2005.12	33,962	36,198	17,342	9,093	9,093	7,527	9,763
	2006.01	27,169	29,451	13,537	7,466	7,466	6,166	8,448
	2006.02	36,992	39,969	18,781	9,641	9,641	8,570	11,547
	2006.03	34,553	36,038	17,765	8,375	8,375	8,413	9,898
2006.04	25,193	26,228	12,937	6,031	6,031	6,225	7,260	
2006.05	24,710	25,766	12,768	5,628	5,628	6,314	7,370	
전주시	2005.05	9,065	9,750	5,454	2,050	2,036	1,561	2,260
	2005.06	8,543	8,927	4,891	1,976	1,986	1,676	2,050
	2005.07	7,728	7,562	4,093	1,807	1,557	1,828	1,912
	2005.08	8,762	9,380	4,925	2,036	1,981	1,801	2,474
	2005.09	8,489	9,082	4,980	2,001	2,072	1,508	2,030
	2005.10	8,757	9,195	5,280	1,964	1,796	1,513	2,119
	2005.11	11,783	11,704	7,518	2,684	2,106	1,581	2,080
	2005.12	14,189	15,475	9,041	3,224	3,465	1,924	2,969
2006.01	11,250	10,024	5,969	3,444	1,928	1,837	2,127	
2006.02	14,598	14,610	7,955	3,892	3,067	2,751	3,588	

	2006.03	11,840	12,981	6,874	2,640	3,214	2,326	2,893
	2006.04	8,861	9,755	5,307	1,881	2,331	1,673	2,117
	2006.05	9,130	9,624	5,472	1,840	2,039	1,818	2,113
군산시	2005.05	3,505	3,570	2,277	413	369	815	924
	2005.06	3,334	3,582	2,205	385	409	744	968
	2005.07	3,075	3,234	1,963	350	358	762	913
	2005.08	3,360	3,656	2,030	447	461	883	1,165
	2005.09	4,102	3,504	2,082	969	424	1,051	998
	2005.10	3,930	4,253	2,537	541	612	852	1,104
	2005.11	4,004	4,567	2,756	468	761	780	1,050
	2005.12	3,572	4,271	2,285	480	681	807	1,305
	2006.01	3,486	3,858	2,220	415	561	851	1,077
	2006.02	5,162	5,605	3,277	690	802	1,195	1,526
	2006.03	5,491	5,767	3,808	591	604	1,092	1,355
	2006.04	3,687	3,969	2,462	380	483	845	1,024
2006.05	3,563	3,837	2,356	379	413	828	1,068	
익산시	2005.05	4,028	4,329	2,502	595	718	931	1,109
	2005.06	3,882	4,280	2,370	649	639	863	1,271
	2005.07	3,519	3,945	2,125	575	698	819	1,122
	2005.08	4,817	5,033	2,970	797	750	1,050	1,313
	2005.09	4,201	4,668	2,615	692	810	894	1,243
	2005.10	4,063	4,441	2,527	708	690	828	1,224
	2005.11	4,567	4,932	2,878	772	861	917	1,193
	2005.12	4,795	5,525	3,024	838	974	933	1,527
	2006.01	4,447	4,703	2,555	855	772	1,037	1,376
	2006.02	5,993	6,583	3,498	1,110	1,180	1,385	1,905
	2006.03	5,529	5,972	3,292	880	1,076	1,357	1,604
	2006.04	4,071	4,331	2,400	722	730	949	1,201
2006.05	4,167	4,485	2,505	686	702	976	1,278	
정읍시	2005.05	1,448	1,684	725	284	322	439	637
	2005.06	1,272	1,578	637	211	334	424	607
	2005.07	1,112	1,356	517	240	280	355	559
	2005.08	1,449	1,763	726	250	317	473	720
	2005.09	1,374	1,601	647	278	319	449	635
	2005.10	1,326	1,459	626	257	259	443	574
	2005.11	1,582	1,824	812	303	353	467	659
	2005.12	1,630	2,117	826	365	535	439	756
	2006.01	1,520	1,840	770	301	456	449	614
	2006.02	2,260	2,625	1,212	505	583	543	830
	2006.03	2,051	2,299	1,053	378	414	620	832
	2006.04	1,612	1,749	844	292	328	476	577
2006.05	1,598	1,706	755	340	347	503	604	
남원시	2005.05	934	1,019	435	164	170	335	414
	2005.06	876	1,025	411	129	183	336	431
	2005.07	863	941	442	157	164	264	335
	2005.08	1,029	1,188	496	186	195	347	497
	2005.09	966	1,132	537	146	163	283	432
	2005.10	864	1,094	470	123	199	271	425
	2005.11	968	1,202	483	155	230	330	489
	2005.12	1,129	1,569	584	205	393	340	592
	2006.01	1,148	1,315	629	199	294	320	392
	2006.02	1,571	1,866	834	304	392	433	640
	2006.03	1,664	1,845	912	280	311	472	622
	2006.04	1,074	1,151	544	183	206	347	401
2006.05	991	1,083	473	191	189	327	421	

김제시	2005.05	1,050	1,209	409	371	417	270	383
	2005.06	1,035	1,178	408	378	415	249	355
	2005.07	1,015	1,131	358	385	440	272	333
	2005.08	1,152	1,263	392	418	461	342	410
	2005.09	1,073	1,238	414	351	460	308	364
	2005.10	957	1,154	351	335	442	271	361
	2005.11	1,023	1,297	427	348	485	248	385
	2005.12	1,329	1,634	540	487	624	302	470
	2006.01	1,165	1,455	426	465	626	274	403
	2006.02	1,795	1,909	721	646	714	428	474
	2006.03	1,896	1,820	693	777	627	426	500
	2006.04	1,259	1,325	484	482	464	293	377
2006.05	1,244	1,243	476	464	406	304	361	
완주군	2005.05	1,563	1,262	187	1,045	714	331	361
	2005.06	1,514	1,139	170	1,040	663	304	306
	2005.07	1,086	914	106	708	526	272	282
	2005.08	1,338	1,311	190	800	742	348	379
	2005.09	1,203	1,138	118	743	687	342	333
	2005.10	1,160	976	93	752	584	315	299
	2005.11	1,336	1,294	125	887	856	324	313
	2005.12	1,301	1,522	122	812	960	367	440
	2006.01	1,176	1,229	128	762	762	286	339
	2006.02	1,594	1,712	169	999	1,080	426	463
	2006.03	1,799	1,383	123	1,199	863	477	397
	2006.04	1,163	1,072	128	725	629	310	315
2006.05	1,064	1,080	89	672	686	303	305	
진안군	2005.05	254	385	46	123	218	85	121
	2005.06	226	312	36	83	169	107	107
	2005.07	234	331	34	121	194	79	103
	2005.08	272	326	35	141	175	96	116
	2005.09	323	371	85	142	166	96	120
	2005.10	290	355	64	144	182	82	109
	2005.11	322	380	62	163	211	97	107
	2005.12	2,135	611	191	1,189	241	755	179
	2006.01	458	1,528	166	176	811	116	551
	2006.02	493	750	82	291	390	120	278
	2006.03	588	517	84	345	275	159	158
	2006.04	474	347	92	248	152	134	103
2006.05	375	323	47	216	166	112	110	
무주군	2005.05	219	205	31	41	39	147	135
	2005.06	212	205	9	44	57	159	139
	2005.07	185	164	28	46	34	111	102
	2005.08	233	229	26	43	51	164	152
	2005.09	182	226	16	52	54	114	156
	2005.10	207	217	20	49	60	138	137
	2005.11	201	253	38	32	46	131	169
	2005.12	265	344	37	54	96	174	211
	2006.01	225	263	27	60	68	138	168
	2006.02	273	419	33	76	116	164	270
	2006.03	404	358	57	81	76	266	225
	2006.04	382	242	19	111	62	252	161
2006.05	239	201	24	42	36	173	141	
장수군	2005.05	185	241	15	55	88	115	138
	2005.06	156	208	20	68	91	68	97
	2005.07	165	215	24	63	100	78	91

	2005.08	204	215	13	99	96	92	106
	2005.09	194	240	18	73	129	103	93
	2005.10	192	237	12	94	87	86	138
	2005.11	244	264	21	144	124	79	119
	2005.12	242	270	10	137	143	95	117
	2006.01	260	308	32	138	153	90	123
	2006.02	324	370	54	147	194	123	122
	2006.03	320	283	30	157	111	133	142
	2006.04	377	234	50	187	100	140	84
2006.05	292	189	16	148	70	128	103	
임실군	2005.05	301	316	20	197	182	84	114
	2005.06	329	309	23	219	184	87	102
	2005.07	245	271	42	137	162	66	67
	2005.08	291	325	16	187	173	88	136
	2005.09	288	313	22	165	209	101	82
	2005.10	230	313	28	141	186	61	99
	2005.11	285	371	28	177	240	80	103
	2005.12	610	499	52	396	285	162	162
	2006.01	337	377	31	217	242	89	104
	2006.02	513	477	36	336	270	141	171
	2006.03	567	411	46	382	222	139	143
	2006.04	469	322	47	308	172	114	103
2006.05	315	278	22	198	167	95	89	
순창군	2005.05	235	342	33	60	110	142	199
	2005.06	256	275	30	74	90	152	155
	2005.07	225	234	46	69	63	110	125
	2005.08	350	362	64	96	106	190	192
	2005.09	274	329	46	70	96	158	187
	2005.10	254	248	48	61	46	145	154
	2005.11	846	403	120	280	99	446	184
	2005.12	1,431	505	94	554	162	783	249
	2006.01	331	1,004	83	99	384	149	537
	2006.02	441	766	142	125	240	174	384
	2006.03	418	539	128	94	154	196	257
	2006.04	396	373	104	131	89	161	180
2006.05	305	343	77	69	95	159	171	
고창군	2005.05	490	579	139	107	119	244	321
	2005.06	446	490	116	108	99	222	275
	2005.07	389	476	126	73	97	190	253
	2005.08	535	593	155	127	96	253	342
	2005.09	681	756	274	118	134	289	348
	2005.10	583	578	153	134	110	296	315
	2005.11	643	780	231	151	166	261	383
	2005.12	665	884	220	159	228	286	436
	2006.01	620	720	197	127	160	296	363
	2006.02	884	988	253	232	244	399	491
	2006.03	926	873	293	212	148	421	432
	2006.04	710	622	186	180	111	344	325
2006.05	638	633	164	149	129	325	340	
부안군	2005.05	545	634	173	187	190	185	271
	2005.06	500	585	166	148	193	186	226
	2005.07	423	513	106	140	198	177	209
	2005.08	632	684	186	184	207	262	291
	2005.09	600	700	187	166	243	247	270
	2005.10	571	750	209	199	249	163	292

	2005.11	668	795	282	201	227	185	286
	2005.12	669	972	316	193	306	160	350
	2006.01	746	827	304	208	249	234	274
	2006.02	1,091	1,289	515	288	369	288	405
	2006.03	1,060	990	372	359	280	329	338
	2006.04	658	736	270	201	174	187	292
	2006.05	789	741	292	234	183	263	266

### 5)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점 :2004	가구	인원
	가구	명
전라북도	57,842	112,547
전주시	9,763	20,925
군산시	7,548	15,124
익산시	8,403	16,840
정읍시	6,232	11,874
남원시	4,040	7,922
김제시	5,739	10,661
완주군	3,294	6,446
진안군	1,328	2,294
무주군	1,502	2,671
장수군	1,189	2,169
임실군	1,452	2,668
순창군	1,287	2,192
고창군	2,663	4,762
부안군	3,402	5,999

### 6)유치원

시점 :2004	원수	학급수	원아수	원아-남	교원수	교원-남	사무직원수	교실수
----------	----	-----	-----	------	-----	------	-------	-----

	개	개	명	명	명	명	명	개
전라북도	522	1,170	21,448	10,998	1,422	24	91	1,292
전주시	104	355	7,190	3,775	454	8	24	425
군산시	56	128	2,500	1,285	156	4	5	153
익산시	87	241	4,691	2,348	305	6	28	240
정읍시	48	100	1,791	894	116	3	4	106
남원시	32	60	1,022	506	72	1	6	40
김제시	41	69	1,106	554	83	-	9	79
완주군	33	43	647	322	47	-	6	49
진안군	15	21	281	157	22	-	-	23
무주군	12	18	232	125	18	-	-	16
장수군	10	16	236	128	17	-	3	17
임실군	14	20	227	101	20	-	1	20
순창군	15	21	304	178	23	-	2	23
고창군	27	37	580	302	45	-	3	41
부안군	28	41	641	323	44	2	-	60

## 7) 초등학교

시점 :2004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생-남	교원수	교원-남	사무직원수	교실수
	개	개	명	명	명	명	명	개
전라북도	415	5,801	160,778	83,879	7,364	3,201	1,895	6,227
전주시	60	1,769	61,428	32,167	2,052	643	346	1,866
군산시	52	770	22,708	11,801	955	407	221	816
익산시	61	1,011	29,974	15,621	1,240	507	254	1,069
정읍시	37	409	10,210	5,210	524	266	160	454
남원시	27	317	7,648	4,021	418	206	122	321
김제시	35	333	6,848	3,550	446	216	146	358
완주군	30	271	5,447	2,810	369	218	125	293
진안군	14	99	1,442	748	150	75	62	117
무주군	12	88	1,634	832	126	85	57	98
장수군	9	81	1,428	770	119	66	49	93
임실군	14	117	1,798	964	172	82	59	140
순창군	15	107	1,698	891	166	92	71	113
고창군	24	209	4,218	2,256	315	176	120	221
부안군	25	220	4,297	2,238	312	162	103	268

## 8) 중학교

시점 :2004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생-남	교원수	교원-남	사무직원수	교실수
----------	-----	-----	-----	------	-----	------	-------	-----

	개	개	명	명	명	명	명	개
전라북도	197	2,356	74,161	38,498	4,871	2,556	787	2,424
전주시	31	823	30,041	15,684	1,518	750	191	880
군산시	17	305	10,207	5,397	576	277	85	309
익산시	24	414	13,658	7,045	819	455	112	432
정읍시	20	161	4,560	2,389	368	217	67	166
남원시	14	119	3,346	1,702	259	119	44	111
김제시	13	97	2,742	1,364	221	112	47	99
완주군	12	86	2,025	1,005	198	93	44	87
진안군	10	38	544	295	113	67	28	33
무주군	6	35	785	415	87	53	18	28
장수군	7	29	621	313	85	47	16	30
임실군	9	43	799	410	116	63	32	45
순창군	7	35	773	372	93	54	21	28
고창군	14	89	2,062	1,069	216	115	44	90
부안군	13	82	1,998	1,038	202	134	38	86

### 9) 고등학교

시점 :2004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생-남	교원수	교원-남	사무직원수	교실수
	개	개	명	명	명	명	명	개
전라북도	130	2,508	70,726	36,299	5,620	4,015	897	2,575
전주시	29	811	24,697	12,312	1,756	1,275	227	828
군산시	11	296	8,764	4,402	641	426	95	301
익산시	19	418	12,255	6,774	940	720	161	425
정읍시	13	217	5,893	3,004	492	363	72	233
남원시	9	124	3,148	1,581	295	210	57	132
김제시	9	154	4,016	1,773	353	247	67	153
완주군	6	132	3,793	2,085	296	185	45	127
진안군	4	25	525	385	69	53	23	17
무주군	5	33	633	357	87	53	24	33
장수군	5	46	1,020	412	111	69	24	53
임실군	3	28	512	296	70	44	11	29
순창군	3	33	837	474	78	56	18	33
고창군	6	108	2,788	1,522	238	167	37	131
부안군	7	83	1,845	922	194	147	36	80

### 10) 사설학원수

시점 :2004	계	직업기술 분야	국제실무 분야	인문사회 분야	경영실무 분야	예능분야	입시검정 보충학습 분야	수강자수- 계	수강자수 (여)	강사수-계	강사수(여)

	개	개	개	개	개	명	명	명	명		
전라북도	3,155	300	320	22	157	1,293	1,063	111,709	57,585	6,278	4,211
전주시	1,397	129	179	14	26	534	515	54,162	28,688	2,700	1,932
군산시	490	40	47	6	21	216	160	22,885	10,815	997	696
익산시	594	51	79	2	46	243	173	8,145	3,912	1,322	648
정읍시	163	22	-	-	17	81	43	4,625	2,483	270	192
남원시	145	21	5	-	8	73	38	5,519	2,903	335	248
김제시	94	4	2	-	9	27	52	5,811	2,987	187	138
완주군	71	4	1	-	6	31	29	2,417	1,306	180	149
진안군	13	2	-	-	-	6	5	715	404	22	18
무주군	21	3	-	-	4	9	5	715	389	29	19
장수군	8	2	-	-	2	1	3	142	59	12	6
임실군	25	4	-	-	-	14	7	822	471	35	24
순창군	19	2	-	-	5	10	2	829	430	30	18
고창군	61	8	5	-	11	26	11	2,387	1,265	93	73
부안군	54	8	2	-	2	22	20	2,535	1,473	66	50

### 11)신고 체육시설

시점 :2003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전라북도	21	451	39	10	73	182	103	1,084
전주시	6	177	6	2	32	90	40	417
군산시	2	53	2	2	6	19	19	146
익산시	1	96	12	2	16	36	31	223
정읍시	3	38	4	1	5	7	4	89
남원시	4	21	4	2	3	8	4	52
김제시	-	17	1	-	3	8	1	38
완주군	1	10	3	-	2	2	-	22
진안군	-	2	1	-	-	2	1	4
무주군	2	3	1	1	2	2	-	18
장수군	-	3	-	-	-	-	-	10
임실군	-	5	1	-	-	-	-	10
순창군	-	3	2	-	-	1	1	10
고창군	1	10	2	-	2	5	2	26
부안군	1	13	-	-	2	2	-	19

### 12) 문화공간

시점 :2003	종합공 연장	일반공 연장	소공연 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군구 민회관	복지회 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 관
----------	-----------	-----------	----------	-----	-----	----	------------	----------	-----------	-----	-----	----------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전라북도	-	-	-	35	6	-	7	54	24	12	7	6
전주시	-	-	-	20	2	-	-	9	5	1	1	-
군산시	-	-	-	7	3	-	1	4	1	1	-	-
익산시	-	-	-	4	-	-	1	-	2	1	1	-
정읍시	-	-	-	3	-	-	-	9	1	1	1	1
남원시	-	-	-	1	-	-	1	2	6	1	2	2
김제시	-	-	-	-	-	-	-	-	2	1	-	1
완주군	-	-	-	-	1	-	-	-	-	-	-	-
진안군	-	-	-	-	-	-	1	10	2	1	-	-
무주군	-	-	-	-	-	-	1	6	-	1	-	-
장수군												
임실군	-	-	-	-	-	-	1	5	1	1	-	1
순창군	-	-	-	-	-	-	1	9	1	1	1	-
고창군	-	-	-	-	-	-	-	-	3	1	1	1
부안군	-	-	-	-	-	-	-	-	-	1	-	-

### 13)세입세출결산

시점 :2003	세입-총괄	세입-일반	세입-특별	세출-총괄	세출-일반	세출-특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전라북도	7,433,692	6,104,699	1,328,993	5,801,088	5,084,551	716,537
도청	2,387,849	1,955,528	432,321	2,141,763	1,842,218	299,545
전주시	906,443	538,335	368,108	604,392	445,534	158,858
군산시	434,954	364,460	70,494	342,884	289,642	53,242
익산시	669,082	485,045	184,037	438,922	375,372	63,550
정읍시	371,516	311,065	60,451	276,368	257,147	19,221
남원시	389,739	365,264	24,475	319,789	304,191	15,598
김제시	304,830	269,242	35,588	247,184	222,019	25,165
완주군	236,727	225,139	11,588	160,757	156,977	3,780
진안군	261,351	208,094	53,257	178,840	162,191	16,649
무주군	349,886	339,191	10,695	265,467	259,786	5,681
장수군	197,602	178,492	19,110	152,924	140,842	12,082

임실군	229,427	217,868	11,559	158,237	153,664	4,573
순창군	182,716	169,435	13,281	138,066	127,362	10,704
고창군	267,025	249,284	17,741	193,303	179,629	13,674
부안군	244,545	228,257	16,288	182,192	167,977	14,215

#### 14)재정자립도

시점 :2005	일반회계 총계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전라북도	5,102,252	766,082	320,377	25.1
도청	1,969,707	368,600	61,649	17.9
전주시	449,877	148,082	45,578	43
군산시	340,353	58,652	20,259	23.2
익산시	322,276	66,304	45,517	34.7
정읍시	264,920	24,690	12,663	14.1
남원시	233,857	18,295	11,541	12.8
김제시	241,782	18,535	20,512	16.1
완주군	196,005	20,654	32,650	20.3
진안군	142,500	3,914	15,177	13.4
무주군	136,098	6,526	14,434	15.4
장수군	125,961	3,605	7,822	9.1
임실군	150,560	4,941	13,403	12.2
순창군	131,820	4,264	7,565	9
고창군	206,106	8,304	10,182	9
부안군	190,431	10,714	14,619	13.3

#### 15) 종교인구 현황(2005년)

구분	계	종교있음	종교없음	불교	기독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	---	------	------	----	-----	-----	----	-----	-----	-----	-----	----

					(개신교)	(천주교)			대순진리			
전라북도	1,778,879	951,153	822,982	227,364	467,454	202,959	5,124	<b>41,596</b>	1,573	1,932	134	3,017
전주시	622,092	338,968	282,536	70,101	162,971	93,535	545	<b>9,666</b>	654	722	50	724
전주시완산구	348,448	192,187	155,956	38,424	96,499	50,524	306	<b>5,258</b>	484	352	21	319
전주시덕진구	273,644	146,781	126,580	31,677	66,472	43,011	239	<b>4,408</b>	170	370	29	405
군산시	249,212	134,966	112,825	24,442	77,628	29,269	344	<b>2,552</b>	98	246	10	377
익산시	306,974	177,138	129,800	29,289	96,344	34,260	381	<b>15,613</b>	183	314	28	726
정읍시	115,416	55,027	59,891	17,568	26,050	7,374	520	<b>3,049</b>	109	100	7	250
남원시	85,828	42,075	43,616	17,309	15,198	6,721	751	<b>1,798</b>	48	73	4	173
김제시	90,376	51,116	38,446	13,842	27,347	7,092	394	<b>1,754</b>	355	101	1	230
완주군	79,104	44,742	33,296	11,226	22,951	9,304	195	<b>828</b>	33	66	6	133
진안군	23,915	12,576	11,339	4,232	4,478	2,203	124	<b>1,502</b>	12	12	2	11
무주군	22,310	10,189	12,121	5,105	3,208	1,550	45	<b>174</b>	3	25	1	78
장수군	20,486	10,355	10,131	4,956	3,018	1,544	285	<b>419</b>	6	96	0	31
임실군	25,682	12,581	13,101	4,413	4,758	1,757	142	<b>1,390</b>	20	58	3	40
순창군	26,250	10,355	15,883	4,120	3,875	1,735	367	<b>180</b>	11	6	6	55
고창군	<b>55,994</b>	<b>26,406</b>	<b>29,588</b>	<b>12,090</b>	<b>8,871</b>	<b>2,657</b>	<b>821</b>	<b>1,857</b>	<b>16</b>	<b>23</b>	<b>1</b>	<b>70</b>
부안군	<b>55,240</b>	<b>24,659</b>	<b>30,409</b>	<b>8,671</b>	<b>10,757</b>	<b>3,958</b>	<b>210</b>	<b>814</b>	<b>25</b>	<b>90</b>	<b>15</b>	<b>119</b>

